

공권력 강화가 국가번영 토대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와서 놀라는 것은 무척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 매우 엄격한 사회라는 것이다. 미국에 오면 교통위반으로 경찰에 잡혔을 때 운전대 위에 손을 올려놓고 꼼짝 말고 있으라고 주의를 준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바로 총을 겨눈다. 경찰이 차 앞에서 교통위반 딱지를 쓰고 있는데 한국 학생이 시동을 걸자 수갑을 채워 구치소에 감금한 적도 있다. 한국은 어떤가? 술 마시고 경찰서에 들어가 오줌을 갈기고 경찰에 샷대질을 해댄다.

아직도 민주화 외치는 세력 있어

외국인들과 같이 서울에 오면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덕수궁 앞에만 가면 수치스러워진다. 흉물스러운 전경버스들이 서 있고 그 옆에는 시위대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이라고 해서 선을 그어 놓고 이 선을 넘으면 국회의원이라도 바로 구속을 한다. 근데 우리는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선(善)이란 풍조를 조장당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독재시절 민주화라는 이름하에 공권력에 대항하면서 오히려 영웅 같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다. 세계 민주화 지수가 아시아 최고지만 아직도 민주화를 외치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이 민주화의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되고 있다.

우리는 남·북한이 이념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준전시 상황의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이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1952년 미국 뉴욕주에서 ‘공산당원은 교사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국가, 호주, 미국 등 선진국은 공산당을 만들 수 없다. 선진국이 공산당을 철저히 배척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패망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북한을 옹호하는 명백한 반역죄를 지어도 바로 복권시켜준다.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경찰과 국민에 피해를 줘도 정의로운 일을 한 것으로 미화시켜 준다. 청소년들은 좌파성향으로 왜곡된 한국 근대사 교육을 받는다. 피땀 흘려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를 만들었는데 정작 후손들이 비난을 하게 만든다. 미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 해군정보국 직원이었던 로버트 김이 기밀로 지정되지도 않은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관련 정보를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에게 유출한 혐의로 9년간 형을 살았다. 자신이 소속한 조직의 기밀을 누설할 경우 혹독한 형을 받지만 우리는 오히려 영웅취급을 받는다.

미국은 한국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반정부 세력,

특별기고



박재광

·美 위스콘신대 교수
·환경공학

국책사업 반대앞장세력

‘약자보호’미명아래

사회적 분란야기

외부 시위꾼 개입차단

주민에 실질 이득 가도록

준법정신 교육시켜

종북좌파세력 쫓아내야

테러들에 대해 단호하다. 9·11 테러 이후 만들어진 ‘애국법’은 ‘법 위의 법’으로 영장 없이 감시와 도청이 가능하고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다. 지금도 매일 17조 개의 이메일, 전화 통화를 수집, 감시하고 있다.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날 일들이 미국에서는 매일 행해지고 있다. 우리는 좌파와 우파 진영의 매스컴이 한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르게 보도를 한다. 좌파진영은 매우 집요하고 시위에 의존한다. 따라서 매스컴은 물론 관·검사들까지도 이들을 두려워하는 상황에까지 도달했다.

매스컴은 공정하게 보도를 하고 국민이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론을 내놓고 그 논리에 맞추다 보니 국민은 자신이 접하는 매체의 논리에 길들여진다. 이것이 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이다. 지금까지 많은 국책사업들이 환경문제로 큰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다. 그러나 공사 후 시민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가 주장하던 재앙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들을 편하게 만들고 경제성장 동력으로 세계 5대 공업국가가 됐다. 국책사업은 단순한 삽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이다. 반대에 앞장선 사람들이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선한 양의 털을 쓰고 사회적 분란을 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물질적 이득을 추구한 사례들도 있었다.

과거 국책사업의 환경갈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으나 외지에서 온 전문시위꾼들이 가세하면서 격화되고 타협 없는 반대로 사태가 심각해져 공사 중단까지 초래했다. 또한 일부 세력들은 이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갈등을 빌미로 정권까지 부정하거나 다른 정책까지도 반대했다. 대립을 위한 반대로 인해 온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혜택도 받지 못 하고 이웃 간에 반목만 생겼다.

합법적 절차 거쳐 공사 강행해야

선진국과 같이 민주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 지금까지 주민 당사자들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무사안일주의로 미루면서 책임만 회피한 사례들이 있었다. 제일 먼저 인사권자가 임명할 때 해야 할 일들을 명확히 지시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외부 전문시위꾼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이득이 가도록 해야 한다. 종교계도 갈등의 주체가 아니라 중재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정치권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정권에 대한 대항의 수단으로 국책사업의 갈등을 이용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이제 국민들이 배제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갈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은 국가는 물론 서민들에게도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합법적 절차를 거쳐 강행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환경운동가들의 주장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애들이 보챌다고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 애들이 아무리 울며 보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놓아둔다. 한국은 어떤가? ‘헌법위에 때법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공권력이 제대로 먹힐 리 없다. 이제는 학교에서부터 준법정신을 교육시키고 생활화 시켜야 한다. 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적 행동을 안 한다.

더 이상 사회가 이런 부류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좌파는 시들어가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청년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다. 선동과 오도가 더 이상 먹이지 않는 시대가 왔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세력을 국민이 지지할 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종북좌파 세력을 쫓아내고 공권력을 강화한다면 대한민국은 우수한 국민성을 바탕으로 20~30년 후에 세계 2대 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大韓言論人會 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

대한언론인회 제19대 회장 입후보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회장은 정기총회 2개월 전에 선거에 관한 일정과 후보등록 절차를 본회 회보(대한언론)에 공고 한다’는 본회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2장 2조 선거공고 및 후보등록 ①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입후보 할 회우는 본회 정관 제13조 ①항 및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 30인의 추천을 받아 본회 사무국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마감 : 2013년 12월 10일(화) 오후 5시까지

등록 서류 : ① 추천서 30장 (소정양식)

② 등록서 1통 (소정양식)

③ 이력서 1통(명함판 사진 1장 첨부)

2013년 11월 1일

社団法人大韓言論人會

본회, 필리핀 아키노 3세 대통령에게 감사패 전달

6·25 다음날 외국특파원으로 첫 파견된 부친 아키노2세 한국전종군기자 공로기려

본회 후원기회장과 한국전참전언론인회 박기병회장은 18일 오전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박근혜대통령 초청으로 국빈 방문한 필리핀의 베니그노 아키노 3세 대통령에게 그의 부친인 고 베니그노 시메온 아키노 2세 상원의원에게 증정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키노 3세 대통령의 모친인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부친이기도 한 고 아키노 2세 전 상원의원은 1950년 북한의 전면 침공으로 한국전이 발발하자, '마닐라 타임스'지 특파원(당시 18세)으로 6·25 다음 날인 26일 첫 외국 특파원으로 한국에 파견돼 종군기자로 국군과 유엔군을 따라 압록강까지 복진하며 보도활동을 했다. 이날 증정된 감사패엔 “1950-1953년의 한국전에서 종군기자로 아키노 2세가 보인 용기와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한 고귀한 기여에 감사한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아키노 2세 전 상원의원은 1983년 8월 마르코스 대통령의 장기 독재에 반대하는 필리핀 국민의 민주화 운동을 지도하기 위해 망명지나 다름없던 미국으로 부터 마닐라로 귀국중 마닐라 공

향에서 피격당해 돌아갔다. 박근혜대통령과 17일 정상회담을 가진 아키노 3세 대통령은 18일 전쟁기념관의 한국전 참전 필리핀 군 전사자 112명의 명비를 찾아 헌화, 참배했다. 그 자리에서 아키노 3세 대통령은 아키노 전 상원의원과 1980년대 초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원으로 가깝게 지냈던 본회 문명호 주필로부터 그의 피격 사망 직후 동아일보에 쓴 회고기(당시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 ‘내가 만난 미국서의 아키노’와 그후 필리핀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대통령에 출마한 아키노 3세 대통령의 모친 코라손 아키노 애기, ‘내가 만난 코라손 아키노’를 ‘여성동아’에 기고한 회상기(북사판)를 선물 받았다. 대한언론인회의 고 아키노 2세 감사패 증정 뉴스는 한국과 필리핀의 미디어에 크게 보도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박세환 재향군인회회장, 이혁필리핀주재 한국대사, 지갑종 유엔한국참전국협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4]



후원기 회장이 아키노 3세 대통령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다.



감사패증정식에 참석한 인사들. 오른쪽부터 후원기 회장, 지갑종유엔한국참전국협회회장, 아키노 3세 대통령, 박기병 한국전참전언론인회장, 문명호 본회주필.

2013 대한언론상 수상자 결정

■ 특별공로상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 기획취재부문

동아일보 실전 내러티브 연구회
한국일보 사회부 법조팀
TV조선 사회 2부 특별취재팀

대한언론인회는 2013년 대한언론상(제22회) 수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올해의 대한언론상은 한국언론사학(史學)의 권위자로서 한국언론의 역사적 고찰에 독보적인 연구실적을 남겨 우리나라 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를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동아일보 편집국 실전 내러티브 연구회(송상근 신광영 최예나 기자), 한국일보 사회부 법조팀(강철원, 김기중, 김청환, 김혜영, 남상욱, 이진희, 정재호, 조원일 기자), TV조선 사회2부 특별취재팀(김혜민, 유선의, 정원석, 하누리기자)을 기획취재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

다음은 수상자들의 공적을 요약한 것이다.

〈특별공로상〉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

정진석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한언론인회가 발행하는 각종 출판 사업에 해박한 지식으로 자문해 왔으며 한국현대언론사, 한국언론사 연구, 인물한국언론사, 언론과 한

국현대사 등 많은 언론 관련 저서를 통해 한국언론의 역사적 고찰에 독보적인 연구실적을 남겨 언론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는 후학들의 사표가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였음.

〈기획 취재부문〉

○동아일보 실전내러티브 연구회

동아일보의 사내 학습조직인 ‘실전 내러티브 연구회’ 송상근 신광영 최예나 기자는 내러티브 리포트라는 새로운 스타일의 고정 코너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끄는 기획기사로 정착 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문 지면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 사회부 법조팀

한국일보 사회부 법조팀 강철원, 김기중, 김청환, 김혜영, 남상욱, 이진희, 정재호, 조원일 기자는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 이석기 의원이 포함된 지하혁명조직(RO)의 비밀회합의 실체와 회합에서 주고받은 녹취록을 확보해 요약본 및 전문 공개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



정진석 교수



송상근 부장



신광영 기자



최예나 기자



강철원 기자



김기중 기자



김청환 기자



김혜영 기자



남상욱 기자



이진희 기자



정재호 기자



조원일 기자



김혜민 기자



유선의 기자



정원석 기자



하누리 기자

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TV조선 사회2부 특별취재팀

TV조선 사회2부 특별취재팀 김혜민, 유선의, 정원석, 하누리기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사건에 대한 끈질긴 추적과 취재로 검

찰의 전두환 사저 압수수색과 검찰 수사, 압수 미술품 목록 등을 단독 입수 보도했고 이 같은 특별 보도로 전 국민적 관심사였던 두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는 역사적인 결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4]

‘史草 실종’ 親盧세력 거짓말만 난무

한국에서 대통령기록관리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원래 엄청난 기록관리의 전통을 가진 조선 역사에 비추어보면 창피한 일이었다. 그러다가 대통령 기록관리의 체계적 기틀이 처음 마련된 것은 바로 고(故)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 못할 업적이었다.

자신의 업적 스스로 짓밟은 셈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이후 노 전대통령 본인이 자신이 세워놓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업적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먼저 터진 일이 소위 ‘봉하 이지원’ 사건이었다. 노대통령은 퇴임하면서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자신의 거처인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여기에 국가예산을 쓰려다가 행자부가 협조를 사실상 거부하자 여기저기서 얻은 돈으로 이전을 강행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기 힘든 일이었기에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처에 못 이겨 뒤늦게 국가기록원에 반납했다.

두 번째 큰 사건은 소위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증발사건’이었다. 이 회담에서 거론됐다고 알려진 북방한계선(NLL) 부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자 친노(親盧)측은 먼저 대화록의 존재자체를 부정했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12년 10월 12일 해군 2함대 사령부 방문 시에 “남북 정상회담의 비밀대화록이 존재한다면 책임지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다가 친노세력은 대화록은 존재하지만 NLL의 N자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면서 말을 바꿨다. 이런 과정을 주도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직책)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이었다. 아마도 노 전대통령 자신이 봐도 창피했는지 원본을 파기하고 국정원 1차 녹취록도 파기했는데, 국정원에서 2008년 초에 다시 녹취록을 만들지는 몰랐던 듯하다. 그래서 계속 “녹취록은 없다” 나중에는 “NLL은 논의 안했다”라고 자신있게 거짓말을 한듯하다.

이들 중 가장 강력하게 NLL 대화록 관련 거짓말은 해댄 인물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었다. 국회와 방송에서의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하게 해댔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재정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NLL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었다. 김정일도 NLL에 대해 언급을 안했다는 거짓말까지 추가로 했었다. 2007년 10월 8일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와의 미팅에서도 이재정은 “김정일이 NLL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버시바우는 이것을 본국에 보고했다가 위키리크스의 문서유출로 인해 이 대화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런 거짓말은 2012년까지 계속됐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상회담시 NLL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면 배석했던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인데 그냥 넘어갔겠느냐. 100% 내 이야기를 믿으면 된다.”(2012년 10월 17일,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그런 거짓말의 절정은 2012년 10월 10일 김만복, 백종천 등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다. “정상회담 비공개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NLL 이야기가 나올 상황도 아니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이 정도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야하는데도 아직도 그는 계속 말을 바꿔가며 허언을 하고 있다. 이런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더군다나 그는 성공회 신부이기도 하다. 사제로서 어찌 거짓말을 이리도 잘 할 수 있단 말인가. 강재천 민보상법개정추진 본부장,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 33인은 2013년 8월5일 이재정의 국회와 방송에서의 거듭된 위증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대화록 사태가 잠잠해지기 시작할 때 다시 불을 지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NLL포기 발언 논란이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그가 2013년 6월 17일에 제기했다. 아마도 그냥 해본 정치적 수사나 공세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발언으로 논란은 다시 불붙었다. 여기에 더해 대화록 원본을 까자는 문재인위원의 호언만 믿고 따라 온 민주당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처량한 신세가 돼버렸고, 이제는 이 문제를 덮자고 애원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정리해보면, 처음 NLL 발언이 문제됐을 때 이재정, 김만복 등은 “NLL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대화록

특별기고



강규형

·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
·현대사

NLL 포기발언 여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국회·방송등서 위증

문재인 의원도

갈팡질팡 행태 보여

야권·운동권세력

더이상 헛된 변명말고

사죄하고 넘어가야

의 존재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가 국정원 기록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국정원 회의록은 훼손·왜곡될 수 있어 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다가 국가기록원의 원본이 사라진 것이 거의 확실해 지자 이제는 다시 “국정원 원본을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으로 보면 된다”고 한다. 제 정신 가진 사람이면 이런 횡설수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되돌아보면 회의록에서 김정일이 포기라는 말을 네 번이나 했고 그때마다 노 전 대통령은 맞장구를 쳤다. “NLL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데…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되어 있다” “나는 김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반(反)대한민국세력사이에선 널리 통용되는 논리였다. 이런 논리는 1989년 고(故)리영희 교수가 어떤 글에서 NLL의 합법성을 부인한 후 유행을 했었다. 공교롭게도 요즘 국사학계에서 유행하는 “대한민국은 UN이 승인한 한반도 유일합법정부가 아니다”라는 논리도 리영희가 유엔결의안을 의도적으로 오역한 결과 유행하고 있는 잘못된 주장이다. 사실 노 전 대통령은 여러 번 공개적으로 NLL을 부정했고, 많은 좌파와 국사학계 인사는 이런 생각을 공유했다. 바로 리영희에서 비롯된 잘못된 역사관에서 나온 케케묵고 뻔뻔해진 민족 담론(談論)의 영향이었다. 이런 생각은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원로 국사학자 이만열 교수가 ‘복음과 상황’이란 기독교 잡지에 기고한 2013년 2월호 커버스토리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북한 3대 세습과 박근혜 당선이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대선 이 저 사악한 정권과 그 정권을 뒷받침하는 정당을 심판하는 재판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유권자가 다른 선택을 했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MB 정권의 악이 아직 턱밑까지 차지 않았으니 이를 마저 채워서 심판하시겠다는 결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NLL 논란만 해도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국경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철통같이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그들도 NLL이 국제법적으로도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국제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성적 선동으로 나가고 보니…(중략) …차체에 대화록을 공개해서 진실을 밝힘으로써 허위 비방과 선동을 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폐기됐다가 복원된 원본의 내용은 아직 미공개상태지만 대화록의 내용은 이제 대체적으로 밝혀졌고 이만열의 주장은 타당성을 잃었다.

사학자들 무분별 주장에 경악

한국역사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의 역사학자 233명도 2013년 7월 4일 ‘국민에게 드리는 격문(檄文)’을 발표하며 대화록 논란에 대해 “(국정원은) 심지어 국가 최고 비밀인 남북정상대화록까지 왜곡 편집해 새누리당과 함께 선거운동에 활용했습니다. 이는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도대체 무엇을 왜곡 편집했다는 것인가? 오히려 왜곡편집한 것은 원본을 폐기하고 부드럽게 편집한 편집본만을 ‘봉하 이지원’에만 남기고 국가기록원에 이관도 하지 않은 참여정부와 친노세력이 아닌가? 폐기됐다가 복원된 원본이나 녹음파일 원본이 공개되고 나서도 왜곡편집됐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료(史料)를 다룬다는 사학자들이 이렇게 무분별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 경악스럽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였던 진보 인사 박상증 목사는 노 대통령의 철없는 언행을 “헌법 파괴”라 규정하면서 작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NLL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문 의원을 포함한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회담 배석자는 모조리 노 대통령의 NLL 무시 발언을 부인했다. 정말 기억을 못 한다면 집단 기억상실이요, 기억하면서도 부인했다면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이슈 때문에 수세에 몰리니 문재인 의원은 대선전에서 뒤늦게 허겁지겁 “NLL은 사실상 남북 간 영해선이고 단호하게 사수한다”는 선언을 했다. NLL 관련 갈팡질팡 행보는 문의원과 민주당에게 영원한 낙인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소위 운동권 세력이 이 문제를 덮고 싶다면 속히 사죄하고 넘어가는 길만이 남아있다. 더 이상 헛된 변명만 하다가는 일은 점점 더 꼬여갈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주]

‘채동욱 사건’ 언론 제대로 보도했나

지난 한 달간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이 논란은 지난 9월6일 조선일보의 보도로 처음 불거졌고 일주일만인 13일 법무부의 검찰 착수에 반발한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 후 본 사건 못지 않게 관련 언론보도의 적절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채 총장 사건의 언론보도와 관련된 논란의 한 축은 진보 언론과 야당이 주로 제기한 배후설·기획설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검사들의 보호막 역할을 해 주던 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현 정부의 정치공작에 조선일보가 편승했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대선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채 총장을 눈엣가시로 여겼을 수 있다. 또 정황상 조선일보가 자체적으로 이 사안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의도에 대한 비판은 이 사안을 보도한 언론을 비판할 근거는 아니다. 가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이 그와 이해관계가 엇갈린다고 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진보언론이나 야당이 청와대 관련설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것이 사건의 언론 보도 자체를 비판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채 총장의 혼외자 존재여부는 사생활의 영역이며 직무수행능력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비판의 또 다른 한 축이다. 이 사안의 공익성에 대한 논란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황색저널리즘이라는 것이다. 과연 채 총장 혼외자 문제가 사생활의 영역일까?

채 총장은 무한 권력을 가진 사정기관의 수장이다. 이 경우 여성편력은 절대로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할 수 없다. 우선, 국민정서가 과거와는 달랐다. 미국에서도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여성편력에 대한 언론보도가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 존 F 케네디는 재임기간 중 여성편력이 심했으나 당시에는 언론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여성편력이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되던 시절이었다. 흔히 미국에서 ‘라커룸(locker room)문화’로 불리는 남성중심의 정치문화 때문이다.

지금은 다르다. 198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게리 하트 상원의원은 모델 도너 라이스를 무릎 위에 앉힌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퇴했다. 200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도 암투병중인 아내를 두고 자신의 비서와 혼외정사로 아이까지 낳은 사실이 알려져 쓸쓸히 퇴장해야 했다. 공직자에게는 여성편력도 도덕성의 기준이 되는 시대인 것이다.

미국에서도 사정기관의 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여러 경로를 통해 여자문제를 포함한 사생활의 영역을 철저히 검증한다. CIA의 경우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도 면접관을 파견하여

특별기고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공직자 여성편력
도덕성 기준돼야
야당제기 공작설
첫보도 비난근거 안돼

진영논리나
‘물먹은’ 경쟁사의
질투심에 따른
비판은 없어야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자의 사생활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권력이 집중되는 공직자의 여성편력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왜일까?

혼외자의 존재가 공직자인 채 총장에게 큰 약점이며 이것이 빌미가 되어 직무를 수행하는데 치명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토픽에서 자주 접하는 미인계 스파이 사건의 본질이 바로 이 것이다. 미인계에 빠진 공직자가 ‘사랑’ 때문에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적성국 스파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약점을 잡혀 협박을 당하는 것이다. 윤중천이 호화별장에서 고위공직자에게 난교파티를 제공한 것은 이를 약점으로 잡아 청탁을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진보언론은 조선일보가 2009년 11월 19일자 컬럼에서 이명박 정부의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미혼 시절 낳은 혼외자 논란에 대해 “한국에도 공직자의 사생활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며 이 장관을 옹호했던 것을 두고 이중잣대라며 비판했다. 필자도 조선일보가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역으로 이러한 논리는 진보언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09년 당시 이만의 장관의 혼외자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진보언론들이 채 총장 혼외자 문제는 사적영역이라며 조선일보의 보도를 비난했다. 이중잣대인 것이다. 만약 채 총장이 아니라 김관진 국방장관이었던라도 진보언론들은 사적영역으로 간주하고 보도하지 않았을까.

채 총장 혼외자 보도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와 일부 보수언론이 비판을 견디지 수용해야 한다. 우선 조선일보의 최초보도는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치 못했다. 한 나라의 검찰총장의 도덕성문제를 제기하는 기사인지 연예인 스캔들 기사인지 모를 정도였다.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채동욱 총장, 혼외아들 숨졌다”는 단정적 제목을 뽑음으로써 비판을 자초했다.

또 알권리를 빙자하여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채 총장 및 주변인물들에 대한 인간적 배려가 없었던 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모 유력 일간지에서 채 총장 아들의 시각에서 썼다며 게재한 컬럼은 해당 일간지에 과연 데스크기능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요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갑’ 의식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권력도 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채 총장 혼외자 보도에 대한 생산적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비판이 진영논리나 소위 ‘물먹은’ 경쟁 언론사의 질투심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대한언론인회는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 그때 그 현장 못다 한 이야기’ 제3집을 출판하고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은 퇴직 언론인들이 재직 중에 겪은 보람과 아쉬움 등 생생한 증언들을 모아 엮은 것으로 이번 3집엔 본회 회우 36명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못다한 이야기(3) 집필자(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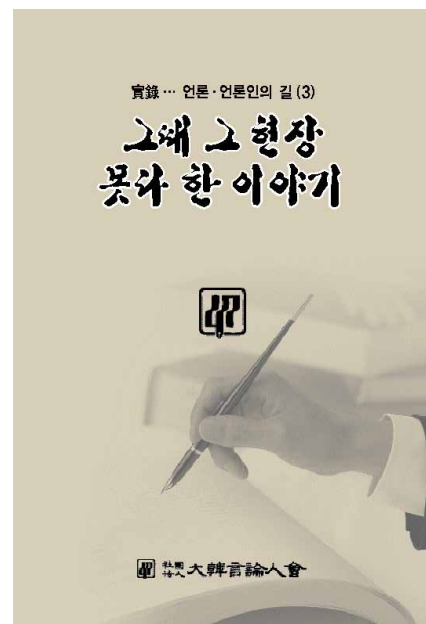
‘특종기자’라는 별명 달고 다녔다(강신구)/ 경주 천마총에 얹힌 추억(고학용)/광주여, 금남로여!(김광섭)/

아, 이 가증(可憎)스런 직업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가(김승웅)/‘5·18취재수첩’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다(김영택)/한국일보-일간스포츠의 추억(김윤재)/과학부 기자의 ‘메뚜기한철’ (김재관)/한국신문 대전환점에 서

다(김지용)/판문점 13인 이런 일 저런 일(김 집)/태평로에 불사른 청춘 20년(2) (김준빈)/방송과 함께한 50년의 인연(김 현)/뒷 얘기 많았던 스포츠기자 시절(노진호)/평양발 남행열차에서 벌어진 ‘활극’ (도준호)/우리는 평화를 갈구한다.(박동선)/실패한 신문기자(서병호)/특종의 여파가 강제해직으로(성재삼)/모스크바에서 온 편지(안건혁)/기자생활(記者生活) 15년, 기업경영 33년(엄병윤)/언론활동 54년, 이런 일 저런 일(여영무)/인기 사회소설과 언론보도의 융합(오인문)/ 박정희와 월례경제동향 보고회의와 경제(윤석웅)/조선일보가

주도한 교과서 파동(이도형)/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치열했던 국제 취재 경쟁(이민희)/나의 언론 입문은 행운(이보길)/ 지방지에서 생각 이외의 경험(이선희)/취재원과 의 인간관계와 기사방향(이재원)/서울올림픽 성화 최종주자가 바뀐 이유(이종세)/프랑스의 완벽한 자료 관리 덕분에 되찾은 우리역사(이흥기)/“판문점 도끼만행사건과 나”(정병수)/다시 태어나도 신문기자 되겠다(최선훈)/신문과 나, 그리고 ‘희한한’ 특종(최재욱)/신문기자 33년 그 보람과 금지(최희조)/호랑이 등에 올라타다(탁성만)/x를 위한 x노래(함정훈)/나는 “왕

‘그때 그 현장 못다한 이야기’ 3집
11월 19일 출판 기념회 개최



따” 기자였다(호천웅)/보람찬 활기로 전국을 뛰었다!!(홍용수)

日本 집단자위권 어떻게 봐야 할까

일본의 아베 총리는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함께 방어에 나설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전제조건 없는 포괄적 집단적 자위권의 도입에 긍정적이다. 아베가 첫 번 총리시절 유사한 간담회에서 네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한정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려던 움직임과 대비된다. 이를 통해,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패전의 결과로 받아들인 전수방위라는 족쇄를 벗어나 적극방위정책으로 본격적인 탈바꿈을 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은 10월 3일 외교 및 방위 장관 간 2+2 대화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와 같은 행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2000년과 2007년 나온 이른바 ‘아미티지 보고서’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일본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 개정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에 대한 외압을 통해 일본을 바꾸려던 과거의 정책에서 벗어나, 일본이 하고 싶은 일을 도와줌으로써 미국의 쌍무적 동맹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은 이미 유엔헌장 51조나 미·일(美·日)안보조약 전문에서 확인한 일본의 고유 권리이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이를 승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에서 논의하듯이 특별히 최근의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등 밀어주기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G20을 만드는 등 새로운 국제적 역할 규정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고 이를 배제하거나 봉쇄할 경우, 불안정한 국제질서가 만들어질 것을 우려하기에 적극적으로 국제적 규범의 틀에 편입하겠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 일본, 한국, 호주 등 우호적 동맹국의 도움과 역할 분담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통해 동맹국인 미국을 도우려는 일본이 밟기는커녕 고마울 따름이다.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 용인이 한국을 무시한 일방적 일본 지원은 아니다. 미국이 고민한 흔적은 미·일 2+2 대화 직전인 10월 2일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역을 찾은 데서 나타난다. 일본의 방위력 향상에는 찬성하지만, 일본의 과거사 관련 움직임은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였다. 실제로 미국은 아베 총리의 과거사 관련 움직임을 염려하면서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략의 부정이 진주만 공격 합리화로,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미국이 주도한 극동재판에서 사형을 받은 A급 전범들에 대한 미화로 연결되고, 자

특별기고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겸
일본연구소장

美의 용인 이유

과거사 인식과 별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일본이 미국 돕는다면

한국은 간접 수혜자

될 수도

한국영토에서

자위대 활동 근거는

막아야

주적 헌법 개정 움직임이 반미 감정의 확산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의 방위 역할 분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만, 과거사 관련 움직임은 억제시키려 한다.

한국은 집단적 자위권이나 헌법 개정 움직임을 과거사의 연장선상에서 보려고 한다. 일본의 호전적 이미지나 침략적 근성을 예로 들면서 집단적 자위권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의 완성으로 다가가는 필요불가결한 절차라고 인식하는 근거다. 마치 일본이 한국의 가상적국인 것과 같은 논의가 무성하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못한 일본이 군사력을 증가시키면 전전(戰前)의 일본으로 회귀하여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논리이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은 두말 할 나위 없이 퇴행적이다. 하지만, 일본의 국민과 지도부가 전전의 영화를 되찾으려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패전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 전전 일본으로의 복귀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결코 입에 발린 말이 아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도입이 한국의 국가 이익에 정면 배치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자기모순이다. 일본 내에 존재하는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없으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작전 수행은 불가능하다. 만약 북한이 전면전이나 국지도발에서 미군을 공격할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활용하여 미군을 돕는다면 한국도 간접적 수혜자가 된다.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한국 방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도입이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방위력의 실체적 결합에 의한 방어력의 강화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민감한 이유는 이해하지만, 한국이 나서서 중국의 대리전을 하는 것 같은 양상은 국익에 대한 손익 계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본 두들기기다.

한국 방위를 위한 한·미·일(韓·美·日) 안보 협력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부정적 대응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 우호국으로부터 차가운 질타를 자초할 수 있다. 심지어 중국조차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이유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할 일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활용하여 한국의 영토에서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막아야 한다. 적어도 사전 협의와 동의에 관한 절차가 치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중동이나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어디서나 일본이 군사력의 투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아베가 되풀이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구현이라기 보다는 적극적 방어주의라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 만들기에 더욱 공헌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 행보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 [국문]

회우들이 펴낸 신간

최정호 회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 온 세기 말, 세기 초의 지난 30년은 캘린더 위의 100년기와 1000년기가 바뀌는 전환기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와 문명사가 바뀌는 혁명적 대변화의 한 세대였다. 세계는 동유럽 제국의 자유화 혁명을 통해 20세기 현대사를 심층적으로 각인한 소비에트 제국의 총체적 붕괴를 보았고 그와 함께 냉전 시대의 종언과 분단독일의 통일을 보았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저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역사에 ‘제3의 르네상스’를 펼쳐보일 세기초 문예부흥의 꿈에 부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살며 보며 겪고 있는 이 시대란 도대체 어떠한 시대인가, 평생을 언론과 대학의 ‘두 세계’에서 살아온 저자 최정호 교수는 일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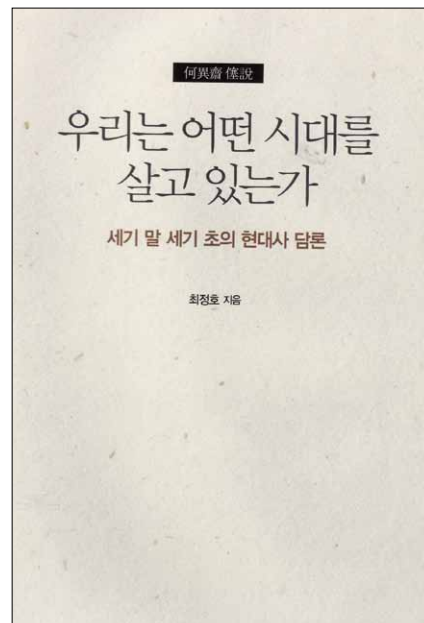
이 베를린 장벽의 구축을 목격하고 보도한 취재 기자에서 이번에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역시 현장에서 목격하고 보도한 현대사학자로서 동서독 통일을 포함해 그 후의 유럽과 세계의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세기말세기초의 현대사담론’이 바로 그 책이다.

또한 이 책에는 이미 30여 년 전 이 나라 지식인 사회에 ‘현대사’ 연구를 발의하고, 현대사 연구의 소홀과 태만이 한국 사회와 교육에 끼칠 심각한 폐

해를 경고한 글 (계간 ‘現代史’ 창간호 권두논문)도 수록돼 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어리석음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날을 살고 있는 오늘에 파묻혀 그 바닥에 굽이치고 있는 어제로부터 내일로 가는 커다란 역사의 물줄기를 보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어리석음이다. 동시대인의 다양한 모습과 담론을 모아 보여 준 ‘사람을 그리다’의 저자 최정호 교수가 이번에는 우리 시대의 다양한 역사적 모습과 담론들을 모아 이 책에서 보여 주고 있다. [국문]



웃기는 국감 종편 본부장 증언 논란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
·전 KBS LA지국장
·수필가

증인 채택 해놓고

‘언론자유침해’

비판일자

“취소하자” 설왕설래

TV조선은 불출석

선서까지 한 채널A는

한마디 증언도 못해

국회가 국감 증인으로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본부장을 부르기로 했다는 뉴스에 흥미가 동했다.

의원들이 보도본부장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칠 텐데 보도본부장들이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언론자유를 내세우면서 당당하게 일갈(一喝)할 것인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속내는 본부장들이 국회에서 멋들어지게 열변을 토해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게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일이라는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일탈해서 자기 자랑하고 서로 비난하고 흠집 내는 일에서 헤어가지 못한다는 평을 듣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바쁜 사람들을 불러놓고 호통이나 치고 답변하려고 하면 시간 없으니 대충 하라고 면박이나 주는 행태에 질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들이 잘 드러난 것이 종편 보도본부장을 국감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한 것일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0월4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3년 국정감사 일정과 함께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했다. 15일 국감에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과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을 불러 이들 방송의 막말과 편파 방송을 따지기로 한 것이다.

종편뿐만 아니라 공중과 방송과 신문까지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이 막말과 편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서 ‘막말과 편파’라면 세계 첩보언급일 국회가 이 문제를 따지면서 한 몫을 하고 자기 반성의 계기를 찾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들 종편의 대주주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7일자 신문을 통해 ‘언론자유 침해’라는 글을 쓰며 반발했고 이에 새누리당은 맞장구치며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것을 취소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국회가 웃기는 일들을 벌인 것이다.

덜컥 결정해 놓고 다시 취소하자고 말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거대 여당의 행태로는 웃기는 일이었다.

웃기는 데는 민주당도 대단한 술수를 발휘했다. 당초 보도본부장들의 국감출석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최민희 의원은 성명을 통해 “종편의 보도내용을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일이 없으며 각 의원실의 증인 요청을 추려 종편사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협상 카드로 보도본부장을 내세워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보도본부장 국감 출석은 새누리당의 아이디어였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이 그렇다면 “증인채택을 취소하도록 재협의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두 방송사 보도본부장 국감 증인 출석은 그렇게 결정됐다.

TV조선의 김민배 보도본부장은 “민간방송사의 보도책임자에게 보도 공정성을 따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편파 방송여부에 대한 판단권자는 시청자들”이라는 내용이 담긴 사유서를 내고 15일 국감현장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며칠 전 TV조선에 출연한 한 논객은 국감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국회가 어찌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털

어 놓기도 했었다. 김민배 보도본부장의 불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두 차례 정회 끝에 회의를 종료했다. 김차수 채널 A 보도본부장은 국감 현장에 출석해 증언 선서까지 했으나 한마디 증언도 하지 못한 채 자정이 돼서야 발길을 돌렸다. 웃기는 국회에 딱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었다. 2개 종편의 보도본부장 국감 증인 문제에 대한 전말을 간추려 봤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생각나는 일들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첫째로 국회의 업무처리의 미숙함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국감에 출석하는 증인을 부르는 비교적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이런 차질과 논란을 빚는다는 것은 국회의 일처리 능력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종편TV에 출연한 논객의 예상도 바로 보지 못하는 국회의 무지인가 아니면 이런 예상을 뛰어 넘는 정략의 발로인지의 아스럽다.

-둘째로 책임지는 국회로 거듭 나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많은 민간인들도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한다. 물론 잘 불렀고 기꺼이 발언해서 나라에 공헌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차수 본부장처럼 국회에 출석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은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 잘못 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궁금하다.

힘 있는 자리의 사람일수록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특검이나 국정조사에도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데 정략의 소산으로 탄생한 국감이나 국정조사가 뻔한 결과로 끝났을 경우 국민세금을 낭비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막강한 파워를 지닌 국회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치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징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언론의 막말과 편파도 짚어야 할 문제이다.

종편뿐만 아니다. 지상과 방송에서도 자주 접하는 문제이며 일부 신문에서도 드러나는 문제이다. 듣기 거북할 정도의 막말에다가 민망할 정도로 편 가르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출연자들 그리고 심각한 문제도 코미디로 포장하려는 방송진행자들의 뻔뻔스러움도 각성의 대상일 것이다. 배운 도둑이 더 무섭다던가? TV에서 막말하고 뻔뻔한 편 가르기에 미래를 거는 듯한 교수, 평론가, 변호사들, 그들과 흥소를 터뜨리며 즐거운 듯 보이는 진행자들도 자신을 보다 철저히 되돌아 봐야 할 일이다. 識者, 亡國의 내일이 걱정된다.

-넷째로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陣營의 싸움이다.

진영과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총체적인 타락 속에서 대한민국의 내일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검찰, 판사들 그리고 선생들, 공무원까지도 온통 편 가르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니 국민대민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예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새 판 짜기라도 한다면 하는 망상까지 일어나게 만드는 요즘 세태다. ㄷ

‘웰 에이징’의 길

우리는 모두 멋지게 늙어가고 싶고,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래도록 살기를 바란다. 바로 웰 에이징(Well-aging)-- 사람답게 늙어가길 바라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Well-being·참살이)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것을 웰에이징(Well-aging·참늙기)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 것은 바로 웰다잉(Well-Dying·참죽음)이다. 올바른 삶의 노정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야 한다. 늙는다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야 한다. 노화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웰에이징'의 길을 찾아야한다. 웰에이징은 참되게 늙어가는 것이다. 나

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늙어가는 것이다. 박상철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장이 말하는 웰에이징의 조건은 이렇다.

올바른 먹거리 선택

웰에이징의 첫째 조건은 식생활이다. 나이가 들면 음식의 맛과 냄새가 달라지고 소화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먹는 음식도 달라져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아지면 생체에

필요한 영양분의 비중도 변화되고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자들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 건강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기위해 음식물의 재료, 조리방법, 식습관 등을 고루 개선해야 한다.

몸을 적절히 움직여야

두 번째 조건은 적절한 신체 활동이다. 나이가 들어도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상태를 지켜내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운동이 필요하다. 일상 생활에서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에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다.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몸의 변화에 맞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노인회가 열고 있는 ‘건강포럼’의 가벼운 운동법 강의 등은 유익하다고 하겠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기초연금 애당초 ‘공약’될 수 없었다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세종대 석좌교수

지키기 어려운 공약
석고대죄 하더라도
무리하게 추진 말고
다른 대안 모색 해야

노인복지 대책은
선별적 지원 바람직
재벌 회장까지
모두 받게 해서야...

박근혜대통령은 작년말 대선에서 집권하면 만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한달에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 9월26일 정부는 소득이 적은 70%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 내년 7월부터 한달 최대 20만원에서 적게는 1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지원금도 20만원 일률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후퇴한 셈이다.

야당은 대선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책임론을 퍼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대선공약 가운데 복지부문의 부풀리기는 일일이 예거할 필요 없이 여당인 새누리당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설령 집권해서 복지공약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경제적 파탄과 재앙을 가져올게 뻔해 보였기 때문이다. 당초 연금수령을 기대했으나 한 푼도 못 받게 됐거나 적게 받게 된 노인들의 실망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 전체의 경제적 장래를 위해 실망하기 보다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내세우는 복지공약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확정한 기초연금 지급안을 요약해서 살펴 본다. 지급대상은 만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아니라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83만원 이하이고 노인부부는 월 133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391만명으로 하위소득 70% 계층이다. 이들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 11년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게 된다. 이들이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의 90%인 353만명에 해당한다. 나머지 38만명이 차등지급을 받는다. 즉 국민연금 가입이 12년이면 월 19만원, 13년이면 18만원, 14년이면 17만원으로 1년에 1만원씩 차감하되 최저 10만원을 지급받게 돼 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시켰다는 건 이를 두고 하는 말이며 국민연금 돈을 끌어다 기초연금에 준다는 얘기는 아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세금으로 조성되는 재정에서 지출된다.

혹자는 앞으로 기초연금 재원을 재정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에서 끌어다 쓰게 되지 않겠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나 이유도, 명분도 전혀 없다고 보아 국민연금 기금에 손을 댄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어 불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연금 총액으로 따져보면 장기 가입자가 돈을 적게 받는 경우는 없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더 감액한 까닭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려 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장기가입자를 우대하지는 못할 망정 불리하게 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개인보험에 가입한다면 그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란 점을 참고로 지적하고 싶다. 왜냐하면 개인보험의 수익성은 국민연금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불입액(보험료)과 수령액(보험액)의 비율을 2, 3배로 잡아 설계돼 있는 반면 개인보험은 판촉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자체 수익을 내야 하는 등 코스트가 많이 들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보험은 또한 소득재분배 기능이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 확정안에 대해 살펴 보았지만 어디까지나 해설을 했을 뿐이다. 필자가 정부조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찬성하는 건 아니다. 현실적으로

해선 안 될 국민기반 공약을 해놓고 어쩔 수 없이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공약반영을 한 자체는 잘 못이라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박근혜대통령의 임기 말인 2017년까지 기초연금에만 들어가는 소요 재원이 39조6천억원. 당초 공약 대비 17조5천억원이 줄어든 금액이지만 여전히 과도하고 불합리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라를 거덜내기 쉬운 포퓰리즘내지는 싼퓰리즘 복지 항목의 하나라는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경제상황, 그리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기초연금 지급방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인을 고려했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대선공약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했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물론 유권자 표를 의식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산에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풍토의 혁파야 말로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이다. 과거 역대 대선 때마다 공약이 남발됐고 어느 정권에서도 공약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이행했던 정권이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선거공약은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복지공약은 실천 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 애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얼마를 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였다. 작년 대선 때만 하더라도 많은 국민이 모든 노인들에게 다달이 20만원씩 정부가 줄 수 있을까, 반신반의 했던 게 사실 아닌가. 그렇다면 재벌 회장한테도 다달이 20만원씩 주어야 하는가. 강남의 어느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자산을 증여해 소득원이 없는 빈털터리처럼 된 노인들이 버젓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면 그게 정의로운 일인가. 비단 기초연금 문제만이 아니다. 지금 추세라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주택 등등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다. 한번 늘려 놓은 복지지출은 줄이기가 어렵다. 한편으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과 가게의 부채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내일 닥칠 재앙보다는 오늘 우선 집권하고 보자는 식의 정치권 행태가 무엇보다 문제다. 여당의 기초연금 대선공약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안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사퇴한 처사는 아주 웃기는 일이다. 책임을 지고 물러난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퇴한 꼴이 됐다고 생각한다.

노인복지대책은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정말로 생계가 막막하다거나 해서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노인들을 우선해 집중 지원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 모든 분야의 복지를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게 아니다. 노인복지 차원의 기초연금문제는 현재의 나라 재정과 경제 상황에 비추어 선별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결판난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기업이든, 가게를 막론하고 우선 쓰고 보자는 식의 행태는 망하게 돼 있다. 예컨대 동양그룹 사태는 어떤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감독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한 두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권력을 잡기에만 급급한 정치인들 때문에 수많은 민초들이 수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필자주]

6면에서 이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의 어울림

셋째로는 남들과 잘 어울리기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만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찾아야 한다. 부부, 가족, 이웃, 친구 모두가 소중하다. 함께 살기위해 노력해야한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진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떠나간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와 이웃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이뤄야 한다. 소원했던 친

구는 물론 선후배에게 전화도 하고 만나자. 어울려서 여행도 떠나고 친목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자. 문화탐방, 대토론회, 출판기념회, 산악회, 서예강좌 등이 좋은 예이다.

사회에 적극적 참여

네 번째는 사회 참여이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나 혼자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이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하고 ‘나눔’도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어도 무슨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도 이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해야 될 때다.

줄 수 있는 여유는 바로 봉사의 기본이다. 나눔운동, 건설한 NGO참여를 해 보자.

하나뿐인 삶 고쳐나가기

웰에이징 장수는 바로 이러한 삶이다. 열심히 노력하며 즐기며 어울리며 사는 것이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한다. 바로 백세인들은 그런 삶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밖에 없고 하나뿐인 삶을 고쳐나가면서 하늘 아래 가장 큰 보람을 이룰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때 오래도록 잘 살 수 있다. [필자주]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 판결 강력 비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 판사 홍순욱·신명희)가 10월7일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피고인 45명 모두에게 ‘정당의 자율성’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국민을 경악시켰다. 신문들은 “보통·직접·평등·비밀이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지켜진다. 대리투표도 민주주의냐?”, “이번 판결은 당내 경선만이 아니라 각종 선거에서 대리투표가 횡행해도 저지할 수 없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무개념 판결’을 비난하면서 상급심의 시정을 촉구했다.

이런 판결은 2012년 4·11총선 통진당 경선 부정으로 510명이 기소된 가운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창원지법이 통진당원들의 대리투표를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 모조리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배치돼 논란이 더 거세졌다.

조선일보는 ‘사법연수원생 오판의 교재’, 동아일보는 ‘상식에 어긋난다’, 중앙일보는 ‘납득할 수 없다’, 매일신문은 ‘무개념 판사’라고 맹공을 가했다. 그러나 좌익지 경향은 ‘3권 분립’을 내세우며 좌(左)편향 판결을 묵과했다. 신문들은 서울중앙지법이 대리투표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로 “헌법이나 법률에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 등 공직 선거의 4대 원칙을 당내 경선에서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내세운 것을 집중 비판했다.

“재판부 판단에 아연실색”

중앙일보는 10월9일 사설에서 “재판부가 내세운 정당의 자율성은 헌법 8조 4항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해산될 수 있다는 ‘헌법적 제한’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 정신이다. 모든 선거가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의 4대 원칙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건 피를 먹고 자란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 과정에서 확립된, 증명이 불필요한 공리다. 술한 목숨이 희생된 4·19민주혁명도 대리·중복투표로 얼룩졌던 1960년의 3·15부정 선거 때문에 터진 게 아니었던가. 선거의 4대 원칙은 인류의 정치적 유산이다. ‘4대 투표원칙은 당내 경선에는 적

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형사35부의 해괴한 판결은 상급심에서 당연히 바로잡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에 선출을 위임한다. 주민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얻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는 정당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민주주의 선거4대원칙 정면 위배 “법원에도 중복교두보” 우려 시각

뽑아줄 때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드시 경선으로 비례대표를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외에서 지명이나 공천으로 뽑는 사례도 많다. 이 경우 당 대표나 당내 기구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경선을 택했다면 선거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상급심의 시정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8일 ‘통진당 대리투표 無罪판결은 사법연수원생 裁判 교재’라는 사설에서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만 돼 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대리투표도 민주적 절차라고 판단했다는 말인가. 법률에 규정이 없다고 대리투표를 인정하게 되면 공직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각종 선거에서도 대리투표가 판을 치고, 결국엔 선거 무용론까지 나오고 말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사법연수원생을 위한 대표적 오판 교재라 할 만하다”고 냉소했다.

매일신문은 7일 ‘통진당 대리투표가 무죄라는 무개념 판사’ 사설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 4대 원칙을 당내 경선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규정의 축자적(逐字的) 해석에 매몰된 무뇌아 수준의 판단이다. 더 심각한 인식능력의 파탄은 정당의 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당내 경선에 공직 선거와 같이 선거 4대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국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

석기가 내란음모죄로 재판 중이고 법무부는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좌익의 위기 속에서 좌경사 판결을 비호할 만할 것이다. 경향은 “새누리당은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법원이나 해당 판사를 겨냥해 공세를 가했다. 법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 대해 ‘공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하자 정두언 의원은 ‘조폭 판결’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중학생도 아는 3권분립 원칙을 외면하고 독선적 주장을 일삼는 것이 과연 집권당다운 모습인가. 새누리당은 도 넘은 ‘사법부 때리기’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화살을 여당으로 돌렸다. 그러나 경향은 중학생은 언급하면서 초등학생도 아는 선거의 4대 원칙엔 입을 봉했다. 우리 정치에서 3권 분립을 저해하는 발언은 수없이 많았다. 천문학적 뇌물을 먹고도 자당원이 불리하면 정치적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하는 일이 다반사다. 3권 분립을 신봉한다면 그런 주장을 앞장서서 나팔 불지 말아야 할 것이다.

궤변 판결 시리즈로 나와

심화하는 좌편향 판결의 맥락을 문화일보가 짚었다. 문화는 15일 ‘국회 이어 법원까지 중복 교두보 걱정되는 안보 현실’ 사설에서 “이미 사법부 일각의 ‘좌편향’은 국민 신뢰를 시험해 왔다. 근래의 ‘김일성 시신 참배=예의→무죄’,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무죄’, ‘불법 도로점거→무죄’라는 궤변 판결 시리즈가 상징적이다. 법외 노조라면 그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법원행정처는 방치해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 국감에서 밝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법 집행유예율은 2008~2012년 평균 50.7%로, 전체사건 점유율 25.6%의 2배에 가깝다. 국회에 이어 법원에도 ‘중복 교두보’가 구축된 것은 아닌지 안보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장면이다. 양승태 사법부는 국기 수호의 보루답게 이런 일탈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우국적 견해를 피력해 돋보였다. [4]

회우들이 펴낸 신간

박헌태 회우 ‘문제는 정치야...’

저자 박헌태 회우는 2000년을 전후해서 출간한 3권의 평론집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21세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리고 잠시 붓을 접는다.

4전년에 박 회우가 태평로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을때 무슨말을 하지 않을까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사회와의 교섭을 일체 끊고 있던중 드디어 그 긴 침묵을 깨고 ‘젊음을 쪽정리로 만들지 말라! 문제는 정치야 바보들아’라고 크게 외치며 장장 250여 쪽의 논평집을 세상에 내놓았다. 저자는 지금과 같은 참담한 현실을 이끌어 가고 있는 요인은 바로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에 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저자는 “그동안 믿어왔던 미신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문제의식으로 재무장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라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때 정치에 발을 들여 놓기도 하고 그리고 KBS방송사장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저자는 방송과 관련하여 정치판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

-“공연히 방송을 놓고, 헛소리를 하지

말라. 방송이 국내 정치에 휘둘리면, 국민의 시야는 좁아지고 결국 나라는 망한다. 이것은 나의 간곡한 경고이다.”-

양약(良藥)은 쓰다고 하지 않던가. 현실 비판의 쓴 소리가 온누리에 메아리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전개되기를 바란다.

신국판 254쪽·동서문화사 발행·값 10,000원 [4]

젊음을 쪽정리로 만들지 말라!
문제는 정치야 바보들아



박헌태 지음



한국인들만 모르는 9가지
송백기론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박정희와 김일성
유대인을 연구하자
역사의 최후를 감추지 말자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
결국은 두뇌싸움이다
‘중복’은 ‘진보’가 될 수 없다
한국인의 지력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
미끼라는 사람, 침묵하는 사람
이념들이, 정신차려!
백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것 달라지지 않은 것

‘KBS 추적 60분’ 편향-불공정성 논란

요즘 KBS가 안팎으로 어수선 하다. 시작은 지난 9월 7일 밤 10시 25분에 방송된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무죄 평결 전말’의 사전 심의에 따른 방송 연기 시비였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8월 27일에 편성됐으나 사전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어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때문에 수정을 거쳐 방송함으로써 제작진은 심의에 대해 공개적인 불만을 제기했고 노조는 심의실장이 방송법과 방송규약을 위반했다며 보직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 부사와 시사제작국장 등 3인이 사전심의를 주재하면서 늘 편향성이 심하다고 지적돼온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인터뷰와 이석기 사태에 대한 언급 삭제 등을 지시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정 1주일 미뤄 방영

이런 과정을 거쳐 앞서 밝힌 것처럼 방송은 한 주 밀려 나갔다.

손질을 다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후 시청자들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KBS가 재판중인(1심 재판 일부 무죄 판결) 문제에 대해 심히 편향적인 불공정한 방송을 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세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KBS 시청자위원회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하는 것은 비록 상대방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었다고 해도 공정성을 지킨 것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2심, 3심 재판 절차를 위해 수사 당국은 상세한 주장을 할 수 없어 정상적인 반론권을 행사하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추적 60분이 재판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점에서 강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정식으로 추적60분의 공정성, 객관성,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방송이 영향력을 주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정식으로 심의에 들어가 심의위원들 사이에 법정(法定) 제재를 주장하는 측과 객관성을 충분히 살리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명백한 무죄임을 입증한 방송이란 주장이 3대2로 엇갈려 법정 제재여부를 두고 11월 초에 전체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노조와 기자협회는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TV조선 ‘임모 여인 집 가정부 인터뷰’ 관련 기사를 따라 보도한데 대해 “KBS를 도탄으로 몰고 가는 미꾸라지 한 마리”라는 자극적인 비난을 퍼부으면서 보직 해임, 불신임 투표와 총파업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을 분석해 보자. 추적 60분은 KBS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탐사보도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제작자들이 나름대로 진실을 추구하고 이른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겠다는 열의나 앞서 가는 제작 기법과 편집 등 제작 기술까지도 돋보이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 속에 묻혀 있는 실체적 진실이라는 문제를 애초에 무시하고 제작자들이 주장하는 사실에 함몰 되는 편향적 제작 태도가 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문제가 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평결 전말’도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가 간첩죄로 기소됐다가 극히 이례적으로 1심

방송시평



오건환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총국장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재판중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 일방주장 근거 “무혐의” 단정

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만 힘을 기울였다고 KBS 내부 사전 심의나 시청자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에서 지적됐다.

“국정원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절차에 입각한 증거위주의 정당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진행자의 클로징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들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외눈박이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제작자 입맛에 맞는 사례 골라

프로그램 서두에서 제작진은 “유모씨의 간첩혐의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잘라 말했다.

중국 국적의 재중 화교로서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사실은 한마디로 짚고 넘어가면서 간첩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작진이 입증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유씨로부터 탈북자 명단을 넘겨받은 엔지의 유씨 여동생이 이를 엔지 시내에서 산 USB에 담아 북한으로 넘어가 북한 당국에 넘겼다는 공소 사실을 뒤집기 위해 엔지의 전자제품 매장 두 곳을 찾아가 USB를 판 적이 없다는 인터뷰를 해서 방송했다.

또 국정원이 유씨가 몇 차례 월북해 북한 당국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한 프린트 흑백 사진을 복구해 중국에서 찍은 사진임을 보여주는 등 방송 기술상으로는 대단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 제작했음이 틀림없다.

방송에서 보여준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유씨가 북한에 간 것은 자신과 통화 중 보위부에 들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간 어머니의 장례를 위한 것이란 증언을 얻기 위해 유씨의 이모집, 유씨와 며칠 함께 있다가 베이징으로 돌아갔다는 유씨의 옛 여자 친구 등을

인터뷰 해 부분적으로 유씨의 공소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상당한 시간과 투자를 통해 얻은 제작자의 소득, 입맛에 맞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곁으로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무선 전화 통화중 보위부 직원이 갑자기 집에 찾아온 것에 놀라 어머니가 사망했고 장

례를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가 아예 북한의 집을 팔아 중국 엔지의 꽤 호화스런(화면을 통해서) 집을 사서 이사했다는 유씨 아버지의 인터뷰나 이모가 유씨와 여자 친구를 한주일동안 집에 머물게 했다가 베이징으로 돌아갈 때 ‘2천원인가 3천원’을 주고 비행기 표를 끊어주었다면서 “이모가 집에 놀러온 친척에게 그 정도는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인터뷰 등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필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시청자위도 “공정성 문제”

KBS시청자위원회도 “아직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1심 재판 결과를 가지고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의하여 피해를 본 것이 확실한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과 내용으로 제작 방송”한 추적 60분은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또 그러한 내용의 방송여부를 둘러싸고 KBS 내외의 논란을 야기하고 또 방송시점도 관련기관(국가정보원)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치열한 시기라는 점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다분한 프로그램”으로 지적했다.

시청자위원회는 특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통해 이번에 방송된 추적 60분이 이 조항을 심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심의 규정을 보면 방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된 방송 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청자위원회는 대부분 유모씨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편파적인 사실과 기법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방송함으로써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공정성이 결여된 방송이 아닌가 하는 시청자들의 우려가 많은 점도 확인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교양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도 같은 점이 지적돼 법적 제재가 예상됐는데 이에 대해 제작진은 국정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14개 문항의 질의서를 보내 A4용지 19장 분량의 상세한 답변을 들어 방송에 반영했기 때문에 국정원에도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고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드러내놓지 못하는 점까지도 배려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KBS 시청자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점을 지적해주고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불리한 경우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불리한 사실은 감추려는 것이 상례라면서 우리 형법은 실제 진실 규명을 과제로 하면서도 인권의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또 하나의 가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치가 충돌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하는 것이 현대 형사법의 일반적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번의 경우에도 재판부는 가장 유력한 증거로 제시한 유모씨 여동생의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진술이 참고인 진술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진술을 받아 제시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지니지 못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결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시청자위원회는 추적 60분이 재판부가 유모씨 여동생의 진술이 사실이나를 따지기에 앞서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지만 해당 진술이 나오기까지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것인데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추적 60분이 몰아감으로써 국가 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을 시청자에게 심어주는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잘못 반복해서 빚어지

한국탐사보도의 전범으로 꼽히는 추적 60분은 2005년 첫 방송 이후 왜곡, 과장, 편파 방송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논란을 빚은 것이 수도 없이 많았고 그때마다 오늘과 같은 논란 속에 휩싸이곤 했다. 늘 같은 잘못이 지적되고 같은 해결책과 제재, 취재 원칙과 방향이 제시되지만 헛 바퀴 돌듯 같은 양상이 반복해서 빚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늘 원점으로 돌아가는 진부한 결론이지만 제작자의 저널리스트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사물을 폭 넓게 관찰하고 선부터 결론부터 내놓고 방향을 설정하는 고약한 습성에서 벗어나라고 충고하고 싶다.

방송을 자기 개인의 시각과 사상을 녹여내는 도구로 생각하는 잘못에서 벗어나 가슴과 귀를 활짝 열어 다른 이의 생각과 말을 들을 줄 알고 녹여내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제작자를 찾아야 한다. ☞

‘디지털치매 → 진짜치매’ 위험성 높다

“우리 집 전화번호가 뭐더라?”

예전엔 노래 몇 곡 정도는 가사를 외웠지만 노래방 기기가 나오면서 거의 까먹었다.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단축키를 활용하면서 집 전화번호마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다. 대화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는 버릇이 생겨 알고 있는 것조차 헛갈린다. 특히 사람들의 이름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대화를 이어가다보면 뒤 늦게 생각나기 일쑤다. 어제 친구와 만나 어느 식당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얼핏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다.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는 이른바 ‘디지털 치매’ 현상이다.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디지털 치매증후군은 10명 가운데 4명꼴이라니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디지털로 인한 치매 증상은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것을 넘어 스트레스 요인도 된다. 길을 나설 때면 휴대폰 배터리 눈금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고 장거리여행 때는 배터리 충전기를 챙기느라 은근히 신경 쓰인다. 기억이 가물거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화현상이려니 생각하는 데, 우습게 여겼다가 진짜 치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니 초기대응이 절실하다.

디지털 치매는 기억력이 약화되고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일 뿐 뇌 손상이 원인인 일반 치매와는 분명히 다르다. 기억력이 서서히 감퇴되면서 언어 능력, 이해력, 판단력, 사고력 같은 인지 기능에 다발성 장애가 생겨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면 진짜 치매다.

디지털 진화로 소통은 퇴화

‘디지털 치매증후군’은 젊은이도 예외는 아니다. 속도의 환상에 빠져 멀티태스킹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컴퓨터로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은 예사고 MP3로 음악을 듣는 것은 덤이다. 인간의 두뇌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성과를 내는데 오히려 일의 효율성만 떨어질 뿐이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대화는 실종된다. 친구들과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도 눈길은 스마트폰을 향해 침묵의 강이 흐른다.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다 보니 스마트폰은 정겨운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 흠뻑했던 가족들이 모여 오순도순 정담을 나누야 할 추석 때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다는 추석 풍속도 보도가 대화의 실종을 실감나게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칼럼니스트

‘입조심 하라’는 말보다 ‘손가락 조심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NS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팔로어 수’를 자랑하며 정치인 못지않게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사들조차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왜곡하여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인간의 뇌는 많이 쓸수록 좋아진다고 한다. 디지털 치매를 예방하려면 디지털 기기와 스마트폰 의존도를 줄이고 뇌에 지적 자극을 주라고 권장한다. 서정주 시인은 말년에 세계의 도시와 산 이름을 외우며 가물거리는 기억력을 유지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욕필 메모다. 취재현장을 떠난 지 오래되다보니 메모하는 습관이 줄었다. 모임이 끝나고 다음 일정을 잡을 때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달력을 확인하고 날짜도 폰에 저장하여 손으로 쓰는 것은 점점 멀어진다.

일기쓰기가 좋은 방법이지만 쓰는 사람도 드물고 쓰더라도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저장하는 게 대부분이다. 기사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읽는 게 습관이 돼 버렸다. 가능하면 신문을 정독하는 게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 뇌 자극에는 독서와 사색이 가장 좋다. 언제부터인가 가을은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이라던 슬로건조차 슬그머니 사라졌다. 한국인의 독서량은 OECD 기준으로 꼴찌다. 책을 읽지 않으니 ‘생각의 영양실조’에 걸리기 마련이다. 생각이 없으니 사려 깊지 못하고 독단에 빠지기 쉽다. 통찰력과 판단력은 무뎌지고, 이성과 지성이 제대로 작동할리 없다. 오만과 독선에 빠져 뻔한 거짓말과 궤변으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위기를 모면하려는 뻔뻔함이 판치는 세상이 됐다. 철학적 사유를 하는 것만이 사색은 아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사색이 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치매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은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고 스스로 두뇌를 자극하고 사용하려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옛날처럼 자주 사용하는 번호는 직접 외우고 다이얼을 누른다. ▲마트, 슈퍼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간단한 계산은 머리로 직접 해본다. ▲운전할 때와 걸을 때 주변 특징을 잘 알 수 있도록 관찰하고 기억하도록 노력한다. ▲자주 메모하고 글을 직접 손으로 쓰는 습관을 들인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디지털 치매 자가진단법’을 통해 나는 디지털 치매에서 안전한지 체크해 보자. [표]

디지털 치매 자가진단법

- 외우는 전화번호가 집 번호뿐이다.
- 주변 사람과의 대화 중 80%는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으로 한다.
- 어제 먹은 식사 메뉴가 생각나지 않는다.
- 계산서에 서명할 때 빼고는 거의 손으로 글씨를 쓰지 않는다.
- 처음 만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전에 만났던 사람인 적이 있다.
- “왜 자꾸 같은 얘기를 하느냐”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 자동차 내비게이션 장치를 장착한 뒤 지도를 보지 않는다.
- 집 전화번호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은 적이 있다.
- 분명 아는 한자, 영어인데 기억나지 않은 적이 있다.
- 애창곡의 가사를 보지 않으면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이 가운데 1~2개 이상만 포함돼도 ‘디지털 치매’를 의심해보아야 한다.

한다. 아이는 모바일 게임에 빠지고 엄마는 송편을 빚으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수다를 떨고 아빠는 스마트폰 눈팅에 여념이 없었다니 끈끈하고 따뜻한 명절 대화를 스마트폰이 앗아갔다.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의 폐해는 사회문제로 비화 됐다. 스포츠 선수와 아이돌 가수 등이 설화(舌禍)를 불러일으키자 자극적 악플로 인신공격을 한다. 개인정보 노출로 ‘신상털기’ 등 사생활 침해가 속출하여 ‘SNS 포비아(Phobia·공포)’가 확산되는 추세다.

잠자는 뇌를 자극하라

디지털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정보가 필요할 때 두뇌에 저장된 정보를 끄집어내려는 노력 없이 곧바로 전자 기기를 이용함으로써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메커니즘이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벤티 스페로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가 뇌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 저장되고, 사람들이 이에 의존하면서 기억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군의 날 기념 행사 본회 40여명 초청관람

국방부(장관 김관진)는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한언론인회 회원기 회장과 박기병 한국전참전언론인회 회장 등 40여명을 성남비행장에서 거행된 건군 65주년 기념행사에 초청했다. 이날 국군의 날 행사에는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참석, 치사를 했고 다채로운 군사퍼레이드로 참석자들을 매료시켰다. [표]



국군의 날 행사를 관람하고 있는 본회회원들.

삼교천 방조제 - 현대제철 위용에 감탄

본회 가을철 문화탐방 당진 일대 다녀와

대한언론인회 회원기 회장을 비롯한 회원 88명은 지난 10월 18일 충남 당진시를 방문했다. 먼저 찾은 곳은 삼교천 방조제. 이 방조제는 1979년 10월 26일 고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돼 각별한 감회를 더해준다. 예산평야·아산평야 일대의 관개수원(灌溉水源)이 넉넉해져 살기 좋은 당진의 당찬 모습, 오늘날 시 승격 1년의 당진이 인구 15만의 자족 도시로 발전한 이유를 알 만했다.

뒤이어 찾은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받아 지금까지 보호받고 있다.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은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줄을 만들고 다려서 마을에 닥친 재앙을 극복하고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전해 온다. 다른 지역과 달리 농촌과 어촌 시장의 영향을 받아 줄 틀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 줄을 꼬아 만들며 줄을 많이 끌고 가는 과정이 독특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무형문화재들이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사라져 갔지만 기지시 줄다리기는 수많은 지역 주민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고 오늘 날에는 민속 축제로 발전하여 매년 4월 당진 지역 대표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점심 메뉴로 등장한 '우렁이 쌀밥'도 특미 중의 특미. 야들 야들한 상추에 우렁이 된장을 싸서 먹는 맛, 여기에 당진시가 자랑하는 막걸리 특주를 곁들이니 밥맛이 꿀맛 같다.

오후엔 석문면 삼화리 소재 KBS 당진송신소에 들렀다. 여기또한 고 박정희 대통령의 공식적인 업무의 마지막 일터로서의 의미가 남겨진 곳이다. '대한언론인회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건물 전면에 걸린 현수막이 정답게 반긴다. KBS 당진 송신소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고 있는 79년 10월 26일 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진 곳이다. 송신출



삼교천 방조제위에서 기념촬영.

력 1,500KW의 대 출력 시설로서 안테나 근처에서는 전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램프가 켜질 정도라고 한다. 한민족 방송은 남북화합과 교류의 채널로서 남북관계의 변화에 발 맞춰 북방 동포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일체감과 동질성을 고양시키며 통일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세워졌다. 남북 교류 및 화해 협력의 중심방송인 한민족방송을 송출. 방송구역은 북한 전지역, 일본, 베이징 등 중국 대부분 지역은 물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지역 등까지 전파가 도달된다. 당진시의 자랑은 역시 현대제철소.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손꼽힐 새 없이 가동된다. 2006년부터 진행된 일관제철소 건설 사업을 일단락 시켜 총 2400만t의 조강생산능력을 갖춘 세계 11위의 대형제철소의 위용이 자랑스롭다. 남이장군의 후예답게 선대의 행적을 연대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운 남기는 교수, 낭랑한 목소리로 시를 낭송해준 이원복 여사의 자상한 해설이 또한 정답고 공무에 바쁜 중에도 시종일관 친절환 안내와 후한 대접을 해준 이규만 당진시청 홍보과장과 문현준 홍보팀장, 안병권 주무관의 후의에 감사를 드린다. 특별히 당진시가 고향인 호천웅 편집위원의 각별한 성원에도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4]



KBS 당진 송신소에서.



현대제철 당진공장 견학.

글·정운종 상임이사 사진·이규섭 편집위원

프레스클럽서도 단양 문화유적 탐방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이성준)회원 100여명은 지난 10월 29일 충북 단양 일원의 문화유적지를 탐방했다. 대한언론인회 회원들도 다수 참가한 이번 문

화탐방은 충북 제천의 청풍나루에서 유람선을 타고 옥순봉 구담봉을 돌아보고 고수동굴, 도담삼봉등을 관람했다. [4] (사진=이철영 편집위원)



도담삼봉을 배경으로 선 회원들.



고수동굴 입구에서 기념촬영.

‘孝’로 순종한 대학총장 ... “실버 새마을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64〉

회우초대석

이효계 명예회우의 생활과 삶은 언뜻 화려한 경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생각과 삶의 알파가 믿음과 섬김이요, 사랑과 겸손이 오메가로 비쳐지기에 하는 말이다.

솔직히 말해서 어디까지 진실이며 위선은 섞이지 않았을까하는 의구심이 일 정도여서 말이다. 올곧은 신앙을 지키면서 광주직할시장, 전남지사, 총리비서실장, 농림부 장관 그리고 송실대학교 총장을 지냈다고 하니 말이다.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헤리티지 107동 자택을 찾았고 현관에서 인터폰으로 연락을 드렸다. 본래 길눈이 어두운 편이어서 엘리베이터를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자택 앞에 이르러 보니 문이 열려 있었고 사모님이 고운 미소로 맞으셨다. 이 회우께서는 기다리다가 마중을 나갔단다. 그 새를 못 참으시고... 좀 민망했다.

몸에 밴 겸손·섬김의 생활철학

어정쩡한 위치에서 주객이 인사를 나눴다. 두 분의 첫 인상이 그렇게 조용하고 고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79세이며 74세라는 두 분의 모습은 나이를 담고 있지 않았다. 깨끗하고 맑았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봉투 2개를 건네 주셨다. 하나는 〈李孝桂 인터뷰 기초 자료를 모아 보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란 표지 글이 정갈했고 또 하나는 〈아버님의 자서전을 증명합니다.〉였습시다.

A4용지로 22장인 인터뷰 자료를 받아들면서 이번 원고는 그냥 해결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2건의 자료 봉투를 준비하고 로비까지 마중나오는 치밀함과 살뜰함이 이 명예회우의 생활 자세를 그대로 느끼게 해주었다. 남을 배려하는, 겸손함과 섬김이 몸에 밴 생활 철학이랄까?

-두 분의 결혼 얘기부터 해주실래요? 어떻게 만나셨나요?

“저희는 아버님들이 定婚을 한 사이랍니다.”

-정혼이라니요?

“저의 아버님과 장인 되신 분이 함께 순천군에서 계장으로 일하셨는데 두 분이 친하였고 농반진반으로 정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시고 결혼을 결정하신 거군요?

“1961년이었어요. 제13회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하고 내각수반실에서 수습사무관으로 있을 때 었습시다. 부모님들이 결혼하라고 하셔서 만나보니 말도 없었고 조신했어요. 성가대 봉사한다는 말에 호감이 더 했구요. 그래서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사모님께서서요?

“먼저 사진으로 봤어요. 그랬는데 성깔 있어 보이네요. 수학 선생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도 아버님 말씀대로 계시고 해서 그냥 따랐어요.”

“하늘에도 효도 다 하라”는 뜻

사모님 유신자 권사는 친정 부모님께

서 애린원이란 고아원을 운영하셨고 여순반란사건 때는 고아들을 300여명까지 거둬 정도의 자선가였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고흥군 포두면에 있는 길두교회가 유권사님 선조 때 세우신 교회다.

-李孝桂란 함자가 특이한 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선친께서 특별히 효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에 효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하늘에도 효를 다하라는 의미에서 孝桂라고 작명을 하셨습니다.”

이효계란 작명을 한 이 명예회우의 선친 故이복량 장로는 구례군수와 여천군수를 지냈고 전남부지사를 역임했다.



하나님과 국가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이효계 명예회우가 지나온 삶의 궤적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부모가 정해준 부인과 결혼 ... 아버지 뜻따라 공직 새마을 실무 맡은게 큰 보람 ... 송실대 무보수 총장

-공직자들에게 들려주는 나의 영성 체험 자서전-이란 부제가 붙은 〈영성으로 섬김 국가〉는 177페이지에서 순종으로 효도한 장남 이효계 장로, 송실대학교 제 11대 총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장남 효계는 한마디로 순종하는 자식이다. 대학에 갈 때에 다른 명문대학에 입학할 충분한 실력이 있었음에도 아버지의 강력한 뜻에 따라 기독교 학교인 송실대학교로 진학했고 목회자의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공직자가 되라는 아버님 말씀에 갈등하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그 말씀에 따라 공직자의 길로 나섰다.”라고 썼다.

그리고 이 명예회우는 광주직할시장, 전라남도지사, 국무총리비서실장, 내무부 차관,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거쳐 1997년에는 농림부장관에 오른다.

-공직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일을 하나 꼽아 주신다면?

“1974년에서 1976년까지 내무부 새마을기획과장일 때입니다. 청와대에서 새

마을 비서실 행정관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했습니다. 불철주야로 일했습니다. 매달 청와대에서 열린 ‘새마을 국무회의’ 실무책임자였지요. 새마을 운동의 부처별 실적을 장관들이 직접 보고하는 회의였습니다. 그 때 긴장하던 장관들의 모습, 열정적이던 회의 분위기는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현재 진행형”

-그렇게 터를 닦으신 ‘새마을 운동’이 세계화되어 간다고 하지요.

“새마을 운동이 시작 된지 4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세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와 국가발전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가브랜드 가치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요.

UN의 ‘새천년개발목표’의 핵심 모

델로 논의 되고 있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관심이 큰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2001년 9월에 중국정부 초청으로 ‘제4기 중국 국가지도자 연수회의’에서 강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 성과를 듣고 싶어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을 한국의 새마을 운동방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새마을 운동 예찬론자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지탱해준 ‘힘과 정신’이 있다면?

“한마디로 철저한 기독교 신앙과 국가 섬김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으로서 멸사봉공하고 교회장로서는 진실하고 겸손한 그리고 경건한 삶의 참 크리스찬이 되는 것... 이정신과 힘이 나의 공직생활과 신앙생활을 양립할 수 있게 한 두 축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품었던 작은 의구심이 풀리는 듯 했는데 사모님이

운동 펼치고 싶다”

李孝桂 명예회우

- 전 농림부장관
- 전 전남지사
- 전 숭실대학교 총장

인터뷰 : 글 =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수필가) · 사진 = 이철영 (본보 편집위원)

거들어 주셨다.

“사실 저의 집 이야기와 주변 이야기는 모두 종교, 예수와 하나님 얘기예요. 너무 하나님만 생각하고 세상 재미는 없이 생활해서 파분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돌아켜 보면 모두가 복된 삶이었구요. 잘 자란 1남 3녀와 그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 왔고 잘 자라고 있어 행복해요. 그러구 너무 하나님 얘기만하면 듣기 거북해

“숭실대학교 11대 총장이 돼서 들어다 본 숭실대학교의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특히 재정사정이 어려웠어요. 8만여 대학 졸업생과 8천여 교회에 기도 편지를 썼어요. 일상처럼 새벽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부터. 너부터’라는 또렷한 음성이었습니다. 환청인가 했지만 똑같은 소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깨달음이 왔



아파트 베란다의 화초들을 돌보는 이효계 명예회우 부부.

직자의 길 나서 장으로 큰 업적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명예회우가 기독교집안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7년 작고하신 이복량 장로의 자서전을 풀어보아야 한다. 고 이장로는 부인 고 박정희 권사를 가문의 아브라함이라고 했다. 집안에 믿음을 가져왔고 신앙을 키운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복량 장로는 생전에 슬하 자손 56명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를 올렸는데 일일이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 수첩에 이름을 적어놓고 중보기도를 했다고 썼다.

2남 3녀 중 장남이 이효계 명예회우이며 차남이 화정 총현교회를 담당하는 이효은 목사이다. 그리고 세 딸도 모두 권사와 집사로 교회에 봉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대학 발전기금 900억 모금

-古稀의 나이인 2005년에 모교의 총장이 되셨어요.

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기 전에 너부터 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임기4년 동안의 연봉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먼저 바치라는 얘기가 아닌가? 술선수범하라는 명령을 받들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말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찬반이 분분했습니다. 반대하는 일부 교수들의 불만도 있었구요. 그러나 무보수 총장으로의 결단은 숭실대학의 재단이사회 뿐만 아니라 대학 내 구성원 간에 특히 동문회 그리고 기독교계와 교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총장 보수를 발전기금으로 헌납한 일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4년 임기를 마치게 될 즈음에는 숭실대학교 개교 108년 사상 가장 많은 발전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약 900억원이었습니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셨지만 요즘도 바쁘시지요?

“네 바쁘게 지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한 ‘새벽기도회’의 기도생활을 새벽 4시부터 계속하고 있구요. ‘생명의 삶’을 교재로 QT(묵상시간)를 갖고 있습니다. 2007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누가선교회’ 회장직을 맡고 있고 34년 전에 설립된 ‘한국성서연구회’ 회장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종 친목 모임에 참가하고 그러다 보면 한 주일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㉑

제2형 당뇨병 아침 든든히 먹어라



이광영

- 본회 논설위원
-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고령자가 되면 제2형 당뇨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단백질과 지방을 포함하는 아침식사를 든든하게 먹게 되면 포만감은 물론 혈당도 떨어진다고 이스라엘 헤브루 대학 하다스 라비노비츠(Hadas Rabinovitz) 교수가 지난 9월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

당뇨병학회(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에서 발표, 관심을 끈다.

라비노비츠 교수는 제2형 당뇨병 환자 59명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많은 양의 아침식사(big breakfast), 다른 그룹은 단출한 아침식사(small breakfast)를 하게 한 후 13주 동안 혈액 검사와 혈압 등의 변화를 관찰 하였다. 든든한 아침식사는 당뇨병환자가 지켜야 하는 하루에 필요한 열량의 1/3을, 그리고 적은 양의 아침식사로 하루에 필요한 열량의 1/8을 섭취하게 하였다.

13주 후 그 결과는 아침식사를 든든하게 먹은 그룹에서 혈당과 혈압이 극적으로 감소하였다. 적은 양의 아침을 먹은 그룹에 비해 혈당은 3배, 혈압은 4배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은 그룹은 혈당강하제의 하루 용량을 줄여

야 할 정도로 좋아진 반면 적은 양의 아침을 먹은 그룹의 17%는 혈당강하제의 용량을 오히려 늘려야 했다. 또한 아침을 든든하게 먹은 그룹은 하루 종일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단출한 아침을 먹은 그룹은 배고

픔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든든한 아침을 먹은 그룹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포만감 점수가 높아졌다. 든든히 아침을 먹은 그룹은 더 먹어야겠다는 욕망이 크게 줄었고 단출한 아침을 먹은 그룹은 늘 음식을 그리워했다.

라비노비츠 교수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아침식사가 배고픔을 알려 음식을 더 먹게 하는 이른바 공복호르몬(hunger hormone)이라 부르는 그렐린(ghrelin)의 분비를 저하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모임에 참석한 한 영양학자는 아침에 당질을 섭취하면 15분에서 1시간 사이에 100% 모두가 포도당이 되어 혈당을 증가시키나 단백질의 경우 혈당이 되는데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부만 혈당이 되고 나머지는 다른 목적에 쓰인다고 했다. [4]

이 바쁘게 지나가곤 합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아침 7시 서울 ‘새순교회’에 모여 성경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장신대 MDB 출신인 막내딸 이소운 전도사가 이끄는 베델 공동체 예배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산책과 헬스 등 운동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대한언론인회명예회원이 되신 동기하고 언론관에 대한 말씀을?

“숭실대학 총장시절인 2007년에 ‘한국성서연구회’의 회원으로 만난 제재형 회장의 추천으로 영광스럽게 명예회원이 되었습니다.

40여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가 중차대함을 느꼈고 그 매개체인 언론은 破邪顯正의 본질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경외심과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언론에 대한 소견은 어떠신지요하고 캐물었다. 잠시 멈칫하던 이 명예회우의 답변이 가슴을 때렸다.

“요즘 언론요. 어휴! 파사현정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아직 정정하시고 열정도 넘치십니다. 나라를 위해 한 번 더 뜻을 펼치신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 번 새마을운동을 승화 발전시키는 데 남은 열정을 불태우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른바 ‘실버 새마을운동’을 펼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울러 새마을 운동의 국제화에도 작은 힘이나마 보탬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 명예회우와 인터뷰 한 3일 뒤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은 현대사를 바꾼 것은 정신혁명이었다”며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승화시키자고 말했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에 나눔과 봉사, 배려의 정신을 더하여 승화시키자고 강조했다. [4]

바로잡습니다

본보 9월호의 이학주회우 초대석 실버파이팅에서'효령대군파인 이회우는 종친회인 사단법인 靑權祠의 이사장 대행도 맡고 있다'로 쓴 부분을 '맡았었다'로 바로잡습니다.

얼마전에 끝난 텔레비전 드라마 『구암 허준』을 더러 보았다.

허준의 진면목은 정일품 보국숭록대부(正一品輔國崇祿大夫)로 추증되는 관록(官祿)에 있는게 아니라 성심으로 일관하는 그의 구료정신(救療精神)에 있는 것이고, 그 정신의 결정인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있는 것인데 실록과 드라마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드라마 「허준」을 허준이 보았다면 뿔이 한 자나 돋겠다.

드라마 속에 허준과 동의보감이 등장하지만 시종 웃기지도 못하는 코미디 같은 촌극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연출은 어설프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상 우리나라 제일의 의방서(醫方書)로 평가되는 동의보감과 그 찬자(撰者)인 허준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에 메시지가 없을 것인가 싶었는데 내의원(內醫院) 현판의 좌우에 낙자씩 여덟 글자의 경구(警句)로 걸려있다. 궁내(宮內) 의원(醫院)인 내의원 현판의 오른쪽에 『조섭수양(調攝修養)』 왼쪽에 『약석차지(藥石次之)』다. 무슨뜻인가? 『부엌이 병원보다 먼저다』로 풀 수 있다. ‘조섭’은 양생을 뜻하나 조리(調理)의 뜻도 있고 조리에는 음식등으로 쇠약해진 몸을 회복하는 것을 뜻하나 요리의 뜻이 있으므로 ‘조섭수양’의 주 무대는 부엌이라는 의역(意譯)이 가능하다. ‘조섭’이 먼저라는 말은 없으나 약석(藥石) 곧 약과 침은 의원을 뜻하므로 의원이 다음 차지(次之)라는 말은 조섭수양이 먼저라는 뜻이 아닌가? 그러므로 병원보다 부엌이 먼저라는 해석은 건강부회(牽強附會)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니다.

『조섭수양 약석차지』라는 말은 건강한 삶을 이루게 하는 곳은 병원이 아니라 건전한 식습관(食習慣)과 양신(養身)에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중국의 옛 의서인 황제내경(黃帝內經)에 『병이 아닌 미병(未病)을 고치는 것이 상공(上工)』이라고 한 것은 공(工)이 의(醫)를 뜻하므로 병을 고치는 치료자가 상의(上醫)가 아니라 병을 예방하는 치료자가 ‘상의’, 곧 최고의 의사라는 뜻이다. 그래서 중국의 고대사회에선 먹거리로 병을 예방하고 양신하는 식의(食醫)가 있었던 것이다.

『부엌이 병원보다 먼저』라고 한다면 부엌의 주재자(主宰者)는 주부요 아내이므로 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은 아내가 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양생에 관한 일본서적, 1938년에 첫판이 출간된 ‘식양인생독본’(食養生讀本)에는 부엌을 ‘생명의 약국’으로, 주부는 ‘생명의 약제사’요 ‘한집안의 키잡이’이며 ‘행복한 가정의 무대감독’이요 어머니를 ‘문화의 설계사’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심할 일이다. 확대해석하면 바깥양반에 대한 생살여탈(生殺與奪)권을 아내가 쥐고 있는 것이므로 설설 길 것까지는 없어도 괜히 폼 잡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번 (2회)에 이어 먹거리 이야기 여덟 번째는 참깨와 참기름이다. 참깨의 등장은 아주 옛날이다. 인류시원(始源)의 땅이라는 아프리카의 사바나가 출생의 땅이란다. ‘신농본초경’ 군약(상품)120종의 첫머리에 참깨(胡麻)가 있다. 물론 ‘식료본초’와 ‘본초강목’에도 실려있다. 이시진은 ‘본초강목’에

새로쓰는 **병은 낫는다** <3> 양생법의 뿌리와 열매

약과 먹거리는 뿌리가 같다<下>



권도홍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전 주부생활 부사장

서 이르기를 『오장을 보하며 기력을 돕고, 살갗을 튼튼하게 하며 골수와 뇌를 채우고,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으며 뼈와 근육을 튼실하게 하며, 귀와 눈을 밝게 하며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디게 하며 오래 살게 하는데 오장을 윤기 있게 기르며, 폐를 보하고, 대소장을 이롭게 하며 더위와 추위를 견디게 하며 풍습(風濕·습기 때문에 뼈마디가 저리고 아픈병)을 쫓고, 갈아서 꿀과 버무려 써서 먹으면 백병을 고친다』고 했다. 또 검은깨를 거승(巨勝)이라고 하며 검은 머리칼을 새로 나게 하며 오래 먹으면 빠진 이빨이 새로 난다고 했다.

성산소를 엿앰으로써 건강을 도모 한다는 것이다. 베타카로틴은 사람이 섭취하면 비타민A로 변하지만 비타민A와는 다르다. 다음에 『건강보조식품』편에 쓰겠지만 폐암환자는 베타카로틴의 혈중농도가 낮다는 기록이 있다. 『참깨수퍼건강법』에 들어있는 다섯가지 효능을 보자.

첫째는 통변작용이다. 변비를 고친다는 것이다. 체력이 충실해서 오는 긴장성 변비에는 효과가 없고, 체내수분, 곧 장내 수분이나 대장의 꿈틀거림을 말하는 연동(蠕動) 작용이 약해서 오는 변비에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변비를 의학적으로는 ‘소화관 운동질환’이라고 하는만큼 변비의

부엌이 병원보다 먼저다

참기름 또한 참깨와 비슷한 효능이 열거 되고 있는데 그 특징 중 ‘통대소장(通大小腸)은 변비를 고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일본서적 『참깨 슈퍼건강법』에는 참깨의 효능을 현대과학의 분석에 의해 남김없이 밝히고 있다.

참깨 두 숟갈(25그램)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다른 먹거리와 비교하면 비프스테이크 200그램과 맞먹으며 철분은 시금치 65그램, 칼슘은 우유300cc, 비타민B₁은 현미밥 240그램, 섬유질은 피망 140그램과 같다고 한다. 이 외에도 참깨에 들어있는 리그난 성분은 간장의 알콜 분해기능을 높임으로써 알콜에 의한 간장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스태미너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E와 함께 들어있는 셀렌(Selen·Selenium으로도 불림)은 강력한 항산화(抗酸化)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비타민E와 셀렌이 협조함으로써 그 기능은 배가(倍加)된다고 한다. 항산화란 산화를 막는 힘이다. 쇠토막이 산소와의 화학작용으로 녹이 스는 것이 산화이므로 항산화 기능이란 인체에 녹이 스는 곧, 노화(老化)를 방지한다는 뜻과 같다. 그리고 비타민E와 셀렌은 인체에 트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活性酸素)를 소거(消去)하는 기능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에어로빅스의 창시자인 케네스 쿠퍼(Kenneth H. Cooper)가 쓴 항산화혁명(Antioxidant Revolution)이라는 책에서도 항산화 네트워크를 주장하고 있는데 비타민A의 전구(前驅) 물질인 베타카로틴(beta-carotene)과 비타민C와 비타민E가 합쳐져서 비타민 에이스(ACE)가 되어 활

원인은 섬유질부족과 대장의 연동력 부족으로 일어나므로 참기름의 윤활(潤滑) 기능이 변을 종말처리장인 대장으로부터 밀어내게 된다는 것이다. 참기름을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갈씩 먹고 아울러 식물성섬유질(야채)을 넉넉하게 섭취하고, 앉거나 누워서 상체 일으켜 굽히기 복근운동을 하루에 50번 하면 웬만한 변비는 낫는다고 한다. 거기다가 호두 한 개씩을 죽처럼 씹어서 먹었다고 했다. 암도 고치는데 변비를 못고친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나? 고토남신(故吐納新), 묵은것은 버리고 새것을 들이는게 생명활동아닌가.

둘째는 건위(健胃) 작용이다. 위장은 인체의 병참기지다. 그러므로 옛 중국 의서에는 위장을 오장의 대중(大宗)이라고 했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밤에 볶은깨를 듬뿍 쳐서 먹으라고 했다.

셋째는 시력 강화작용이다. 근시·원시·난시가 낫는 시력강화가 아니라 나이에 비해 노안이 안된다는 것이다. 시신경기능을 강화 시킨다는 것이다. 넷째는 청력강화작용이다. 귀가 밝아진다는 것이다. 귀가 밝은 것을 총(聰)이라고 하며 눈이 밝은 것을 명(明)이라 하므로 총명하다는 말은 본디 눈과 귀가 밝다는 뜻이라 참깨를 오래 먹으면 ‘구복경신’에다 덤으로 총명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다.

다섯째는 근골(筋骨) 강화작용이다. 장복하면 뼈와 이빨의 단단한 경(硬)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특히 심근(心筋)의 수축작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심장질환을 예방하며 근(筋) 섬유와 신경섬유의 흥분전달을 적절하게 조절한다고 한다. 그런데 참깨와 참기름은 잡것이 섞

이지 않은 순정(純正)한 것이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종의 참기름은 백화점에서 파는 이른바 「100%참기름」도 믿기가 어렵다. 더구나 검은깨는 거의 중국산이라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검은깨는 국산을 사기가 어렵다고 잘라 말한다. 그러나 순정한 참깨(검은깨)와 참기름이 강원도 양구에 있다. 한국일보 기자출신이라는 윤원상씨가 경영하는 청옥당(靑玉堂)은 내가 믿고 사는 검은깨와 참기름을 입금과 함께 지급편으로 보내주는 단골가게(033-482-8822)인데 백화점 식품부에서 파는 참기름을 믿기 어렵다는것은 값이 청옥당 제품의 절반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싼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아홉 번째는 오미자(五味子)이다. 율무는 먹거리이면서도 한약재 구실도 하고 구기자와 오미자는 한약재이지 먹거리가 아니면서도 자양성분과 약성이 뛰어나므로 달여서 마시게 된다. 오미자도 ‘본초강목’에서 상품(上品)으로 가름해 놓았는데 이르기를 『오장을 기르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며, 눈을 밝게 하며, 주독을 풀며(解酒毒), 생진지갈(生津止渴), 곧 침이 솟아나 입마름을 그치게 하며 원기부족을 보하며 맛은 짙고, 기(氣)는 가볍다.』고 했는데 오미자200그램, 생수1.5리터를 부어 1리터가 되도록 달여서 마시면 몹시 시다. 맛이 시니까 ‘생진지갈’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올리고당을 섞으면 마시기에 편하나 올리고당도 칼로리가 높으므로 약간만 섞어서 녹인다. 오미자는 주독을 풀고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린지는 몰라도 나는 책을 읽을때 돋보기 안경을 쓰지만 맨눈으로도 햇볕 아래선 영어사전을 읽을 수 있다. 가끔가는 안과병원의 젊은 원장은 나더러 나이에 비해 이렇게 맑은 눈은 드물다고 한다. 백내장 징후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열 번째는 팔이다. 본초강목에 중품(中品)으로 가름해 놓았다. 팔하면 단 팔죽을 연상할지 몰라도 약성이 만만찮다. 당뇨병(消渴)을 고친다는데 일본의 여류 식양(食養·macrobiotic)가인 다나카 아이코(田中愛子)가 쓴 『면역력을 높이는 먹거리』에서는 팔과 호박을 함께 삶아서 먹으면 당뇨병이 크게 개선되거나 낫는다고 적고 있다.

‘본초강목’에선 설사를 멎게하고, 오줌을 통하게 하며,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오래 먹으면 날씬해진다고 한다.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것이다. 잉어와 함께 삶아서 먹으면 각기(脚氣)를 고치고 삶아서 즙을 마시면 술병을 고친다(解酒病)고 한다.

열가지 먹거리와 약재의 약성을 적었는데 아무리 약성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먹거리는 먹거리일 뿐 약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병적인 증상에 먹거리의 약성이 치료제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건강한 삶이란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필수조건으로 작용하므로 먹거리의 약성을 알면 양신(養身)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다음 『백수(百壽)의 조건, 백세를 사는 힘』에 쓰겠지만 건강을 위한 노력,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代價)일 것이다. 



글로벌 청년봉사단 10기 조윤희
(인도 교육봉사)

“내 인생 가장 뜨거운 열혈이 거기 있었습니다”

전세계 18개국에서 교육, 집짓기, 의료 봉사활동을 펼쳐온
5500명의 대한민국 젊은이들

그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클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마련한 국제 자원봉사 문화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연간 1천명의 대한민국 대학생이 선발되며, 방학중 해외 각 국으로 파견되어
세계 시민으로서의 넓은 시야를 가진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게 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HYUNDAI
MOTOR GROUP

사회주의 벗고 관광지 변신 ‘세계의 화약고’

내전의 상처 씻고 자유민주국가로

올 늦여름 발칸 7개국을 다녀왔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7개국은 발칸반도에 위치한 국가들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제외한 5개국은 1991년 까지는 유고사회주의연방에 속한 국가들이었다. 1991년 슬로베니아가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후 19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치열한 내전을 거쳐 독립한 작은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발칸국가하면 첫인상이 세계1차대전을 일으킨 원인을 제공했으며 20년 전에는 유고연방이라는 한 국가 울타리 안에 살았던 사람들끼리 잔인한 살육전을 전개한 ‘세계의 화약고’라는 이미지였다. 그러나 가서 눈으로 직접 보니 과거 공산주의 국가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소득에 구애받지 않은 시민들의 여유롭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정치체제도 사회주의를 버리고 7개국 모두 자유민주국가로 새로 탄생했다. 슬로베니아와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EU에 가입했으며 크로아티아 등 나머지 국가들도 EU에 가입하기 위해 가입 조건에 맞는 국가기반시설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발칸 7개국은 그동안 입고 있던 무거운 외투 같은 사회주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개방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발칸’은 ‘산맥’이라는 뜻이다. 발칸 7개국을 여행하면서 맨 처음 흐뭇하게 느낀 것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다. 나는 웅장한 산맥들 사이를 사렵하듯 지나갔다. 산맥들에는 가파른 성과 수도원, 교회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넓은 호수와 맑은 물, 지평선이 보이는 초원과 목초지, 산등성이의 동화 같은 주황색 지붕들의 파레이드, 도로를 끼고 펼쳐진 해변과 자유롭게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 장난감처럼 앙증맞은 섬과 섬 안에 있는 나체촌 등 발칸제국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이 나라들이 얼마 전까지는 사회주의 국가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누가 믿겠는가. 민주화 이후의 발칸 국가들은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에 눈을 뜨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칸 7개국을 버스로 여행하다보니 유별나게 터널이 많았다. 발칸반도는 알프스 산맥들이 각국에 걸쳐 뻗어있다. 이들 나라는 길을 내기 위해 산을 깎지 않고 터널을 뚫는다. 산림 등 생태계보존을 위해 터널을 뚫는데 8킬로미터에 달하는 터널도 있다. 이곳 사람들은 ‘산을 깎는 것은 폭력이요, 터널을 뚫는 것은 소통이다’는 확고한 관념을 가지고 있단다.

수려한 경관에 나체촌까지

본격적인 발칸여행은 슬로베니아의 포스토니아 종유동굴로부터 시작됐다. 영국의 세계적인 조각가 헨리 무어가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자연 미술관”이라고 격찬한 곳이다. 광산열차를 타고 들어가 내린 다음 걸어서 수 백 만

발칸 7개국을 가다

김 화 (본회 전문위원·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보스니아 모스타리 다리를 배경으로 입구에 선 필자. 1566년 축조된 이 다리는 1993년 11월 유고내전으로 폭파되었다가 2004년 유네스코 도움으로 복원했다.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는 크로아티아 드브로브닉 전망대에서 시가지를 내려다보니 가슴이 확 트였다. 전망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

년에 걸쳐 조금씩 이루어진 석회암의 용식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생겨난 온갖 희귀한 모양의 종유석들이 장관을 이룬다. 피사탑, 공룡, 예수 등 모습을 비롯한 온갖 기묘모양한 모습들이 현란하게 조각되어 있다. 21km에 달한 카르스트형 동굴로 19세기에는 유럽 왕과 귀족들의 체면치레 필수 관광코스였다. 최근엔 모나코의 앨버트 왕이 다녀왔다.

블레드 성은 줄리앙 알프스의 눈동자로 불리는 블레드 호수 위로 높게 솟아 오른 절벽에 세워진 중세의 성으로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다. 성 입구에는 해자가 있어 건설 당시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내부에는 두 개의 정원이 있으며, 위 쪽 정원에는 과거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작은 박물관이 있다. 중세에 어떻게 이런 깎아지른 절벽에 건축을 할 수 있었는지 새삼 감탄할 뿐이다.

크로아티아의 첫 방문지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고 극찬한 두브로브닉. 눈부시게 푸르른 아드리아해 두브로브닉 부두에는 3,0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10여 척의 거대한 유람선들이 정박해 있고 막 도착한 유람선은 부자 관광객들을 토해내고 있었다. 부두 안쪽에는 노천

카페들이 즐비하고 삶의 행복한 이동을 만끽한 관광객들은 한가롭게 담소하고 있었다. 성 안은 프란체스코 수도원과 성당과 기념품을 파는 가게와 반짝시장과 여러 나라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의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혼잡한 세속이 공존하고 있었다. 수도원 정문 위의 피에타 상은 1489년 대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아 성물로 존경받고 있다. 성스러움과 잡스러움이 융합되어 잘 어울리면서 자유가 숨을 쉬고 있었다. 성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약국이 있는데 14세기에 이미 약국과 상수도 시설을 갖추고 고아원까지 있었던 복지국가였다. 성안 거리는 2년 전 고소영이 커피광고를 촬영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성안을 나와 땃밭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올랐다. 전망대 앞의 조그마한 록크를 섬은 나체촌이다.

몬테네그로는 검은 산이란 뜻이다. 산들이 마그네슘의 원료인 보그사이트를 품고 있어 온통 검은 빛이다. 그래서 몬테네그로란 국명이 붙여졌다. 몬테네그로의 코토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럽 남부 최대의 피요르드 지형에 있는 중세의 시간을 간직한 도시다. 코토르는 슬라브 국가 중에서 최초로 해군사관학교가 설립된 곳이며 항해사학교에서는 아드리아해

최초의 해도를 제작했을 정도로 상업과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다. 주요 유적으로는 1166년에 건립된 성 트뤼폰 성당과 검은 돌산 정상에 쌓은 성 요한요새가 있다. 내가 코토르에서 가장 감명 깊게 느낀 것은 성문 바로 위에 각인된 티토의 명언이다. 2차대전 말기인 1944년 11월21일 티토는 유격전으로 나치 히틀러가 점령한 코토르 성을 탈환한다. 그리고 성문 위에 “우리는 남의 땅을 원하지도 않지만, 우리 땅을 뺏기지도 않겠다”는 명언을 새긴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문화권이 접하는 곳으로 두 종교의 건물이 뒤섞인 진귀한 광경을 보여준다. 진정 사라예보가 유명세를 탄 것은 십자군 전쟁을 치른 대립적인 두 종교의 공존보다 세계제1차대전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1914년 6월28일 시내를 흐르는 밀야츠카 강의 라틴 다리에서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것이다.

보스니아는 20여년 전 내전의 흔적이 지금도 건물 곳곳에 남아있다. 국도 주변의 건물에는 내전 당시의 총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나토의 개입으로 내전은 끝나고 보스니아는 독립했다. 내전의 상징이 모스타르 다리다. 이 다리는 1566년 유명한 건축가 마마드 하이텐이 설계한 다리로 내전 중인 1993년 11월9일 오후 3시51분 폭파됐다. 폭파로 끊어진 이 다리는 돈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다가 2004년 유네스코 기금으로 복원됐다. 강물에 떨어진 1,088개의 돌조각을 건져 복원했으며 복원기념식에는 영국의 찰스황태자가 참석해서 축하를 했다.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는 하얀 도시란 뜻이다. 사바강이 도나우강에 합류하는 우안에 자리 잡은 이 도시의 중심가는 내전의 상처와 흔적이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국방부 등 정부청사 건물은 나토군의 스마트탄 공습으로 건물 외곽만 앙상한 흉물로 방치되어 있었다.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는 공원과 녹지가 많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다. 시내 도처에는 지난날의 번영을 말해주듯 유적과 돌로 포장된 도로와 이슬람 사원과 그리스정교 사원이 솟아있고 공산주의 체제를 상기시키는 9월9일 광장·레닌광장·러스크거리 등이 남아있다 농업국가인 불가리아는 EU가입으로 값싼 농산물이 들어와 농민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나라가 가난한 탓인지 정부청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통령궁의 반은 호텔로, 정부청사 반은 불가리아 유일의 백화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독재자 차우세스쿠가 비극적 종말을 맞은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레스트는 숲과 공원과 가로수와 거리의 꽃으로 둘러싸인 ‘작은 파리’로 불리울 만큼 품위와 역사를 느끼게 한다. 드라쿨라 성으로 알려진 브란성은 흡혈귀 소설 ‘드라쿨라’의 가상모델인 블라드3세가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드라쿨라의 성’으로 알려졌다. [4]

맥주축제 - 호수 - 알프스 ... 독일의 참맛 즐기기다

지난 9월 19일 인천공항을 떠나 8일간의 일정으로 두바이를 거쳐 독일뮌헨 일대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아내와 딸과 함께 세 식구만의 조용한 가족 여행이었다.

9월 19일 밤 11시 30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한 에미레이트항공의 에어버스 380은 다음날 아침 9시30분이 돼서야 두바이에 도착했다. 꼭 10시간이 걸린 셈이다. 한국시각은 4시 30분으로 두바이보다 약 5시간 빠르다. 숙박 장소인 아틀란티스호텔로 향했다. 이 호텔은 건설비가 무려 15억달러를 들인 럭셔리호텔이다. 두바이 인공 섬 중의 하나인 팜주메이라 섬의 정점에 위치한 이 호텔은 6성급 호텔이다. 이 호텔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호텔의 인테리어와 외관에 압도당하게 된다. 이 호텔은 뿔 뿔린 호텔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웨스트하우스, 왼쪽은 이스트하우스로 나뉘어져 있다. 내가 숙박한 곳은 웨스트하우스의 22층이다. 호텔 1층에는 두바이가 천연진주로 유명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듯 대형조개와 진주를 만들어놓은 조형물을 볼 수 있다.

이 호텔이 자랑하는 것은 부속건물인 두바이 최대의 대형수족관, 대형수영장, 가족이 비닐튜브를 타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공원, 그리고 하얗고 넓은 호텔전용의 백색해변이다. 외관의 햇살이 수족관 안으로 비추고 무지개 빛 햇살 사이로 유명한 각종 물고기를 바라보는 즐거움은 마치 바다 속에 와있는 느낌을 준다. 한마디로 환상적이다. 물놀이공원은 약 10층높이의 미끄럼틀에서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1인용, 혹은 2인용 비닐튜브를 타고 유명장까지 내려오도록 설계돼 있다. 출발하면 손살같이 내려오다 중간에서는 서서히 내려가면서 천장과 양쪽으로 각종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관람할 수 있다.

다음날 두바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6시간만에 독일 뮌헨에 도착했다. 하룻밤을 자고 시내에서 열리는 맥주축제인 옥토퍼페스트를 관람했다. 9월 22일 일요일이다. 9월 셋째주 토요일부터 10월 첫째주 일요일까지 2주간 열린다. 축제에는 매년 600만명이 다녀간다고 한다. 올해로 180회를 맞는 옥토퍼페스트는 브라질 리우 카니발축제, 일본 삿포로의 눈축제와 함께 세계 3대축제로 불린다.

오전 11시쯤 되자 각종 악대를 앞세운 여러 마리의 말이 끄는 꽃마차, 꽃으로 장식한 자동차 등이 나타나자 수많은 관객이 탄성과 환호성을 터뜨린다. 독일전통복장을 입고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1시간 이상 퍼레이

뮌헨을 다녀와서

김용발 (본회 회우·메디팜헬스뉴스 발행인)



코니히 호수를 배경으로 알프스 산의 중간 지점에 선 필자. 이곳엔 흰눈이 쌓여 동굴을 형성하고 있다.



뮌헨 시내에서 해마다 열리는 맥주축제인 옥토퍼 페스트의 마차 행렬.

드를 구경한 다음 마리엔 광장의 신시청사로 발길을 옮겼다. 이곳의 명물은 독일 최대의 인형시계인 글로켄슈필. 매일 11시, 12시가 되면 사람 크기의 인형들이 나와 10분동안 종소리에 맞춰 춤을 춘다. 이곳 광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다. 이곳뿐만 아니라 카페, 공원, 레스토랑 어느 곳이든 맥주마시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룬다.

오후에 열차를 타고 오스트리아의 찰스부르크를 구경한 다음 히틀러별장과 코니히호수가 있는 베르히데스가덴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는 옥수수밭,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는 소떼들, 넓은 들판, 낮은 산,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담한 마을이 군데 군데 보인다. 베르히데스가덴은 독일 알프스를 대표하는 경승지다. 지리적으로 독일의 동남쪽 끝 험한 산세 사이에 생긴 도시다. 하늘을 찌르는 알프스의 봉우리들과 넓은 코니히호수가 가까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

는다.

하룻밤을 자고 코니히호수로 갔다. 이 호수는 왕의 호수라는 뜻으로 독일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호수라고 한다. 계곡의 깎아지른 듯 한 절벽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다. 호수가 폭이 좁고 위아래로 길기 때문에 마치 강처럼 보인다. 유람선을 타고 가자 중간에서 배가 멈춘다. 선장은 트럼펫을 꺼내어 한가락씩 연주하다 멈춘다. 멈출 때마다 트럼펫소리는 바츠만산의 암벽과 높은 산봉우리에 반사되어 메아리친다.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40여분이 지나자 성 바르톨러메 수도원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송어요리가 일품이다. 알프산 산맥의 중간지점까지 산행을 했다. 쉴 새 없이 걷다보니 다리가 빠근하다. 중간 지점에는 눈이 쌓여 하나의 동굴을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이곳을 목적지로 정하고 올라왔다가 다시 선착장인 수도원으로 하산한다.

24일 오전 매의 동지로 불리는 켈슈타인 하우스로 갔다. 산꼭대기에 있는 히틀러별장을 보기 위해서다.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니 고소공포증이 느껴진다. 해발고도 1,843미터. 아래로 펼쳐진 풍경이 절경이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별장에 오른다. 별장은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상에는 십자가 탑이 있다. 희생된 유대인을 기리는 위령탑이다. 이곳에서는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많은 매를 볼 수 있다. 매가 사람과 상당히 친화적이어서 마치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면 모여들듯이 필자가 과자 한 봉지를 꺼내 조금씩 나눠주자 여기저기서 매들이 모여든다. 과자를 공중에 올리면 매들이 서로 다투며 과자를 채간다.

오후에는 마지막 여행지인 소금광산을 구경했다. 광부가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뚜껑이 없는 박스같은 전동차에 몸을 싣고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동굴 속을 지난다. 지하 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장비와 굴착기 같은 것들로 어떻게 소금 산을 파고 운반하는지 그 과정을 하나 하나 상세히 보여주었다.

이곳은 벽이며, 천장이며 온통 소금 덩어리다. 현관 앞에 세워놓은 소금기둥에 대고 손가락으로 문지른 다음 혀에 갖다 대니 매우 짜다. 지하 동굴을 수직으로 내려갈 때는 미끄럼틀을 이용한다. 몇 사람씩 짝을 지어 앞사람을 꼭 잡도록 한다. 안내원이 맨 뒷사람을 살짝 밀면 일행이 왓~하고 겁을 먹은 사이에 갭에 도착한다. 두바이의 물놀이공원에서 미끄럼틀을 탈 때와 같은 기분이다. 이어서 소금물연못이 있고 이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 전동차를 타고 출구로 나온다.

이곳 소금광산을 둘러본 관광객들은 너나할 것 없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소금을 사가지고 돌아간다. 베르히데스가덴에서의 3일간 여행을 끝으로 다시 뮌헨과 두바이를 거쳐 26일 오후 5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8일간의 독일여행은 나에게도 조용하고 아름다운 관광여행 못지않게 독일 국민들의 검소함을 자동차에서 엿볼 수 있었다.

시내와 시골길을 달리는 벤츠, BMW, 아우디, 폴크스바겐 등 대부분의 차들이 배기량이 높은 고급형의 세단이 아니었다. 뒤에 짐을 싣는 왜건이 많다는 것이었다. 왜건은 가족들과 함께 시장을 보거나 여행을 갈 때 편리하므로 독일인들은 실용적인 것을 선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두바이와 독일여행은 나에게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4]

사우회 소식

동우회-조우회 바둑대회

동아일보 사우회인 동우회와 조선일보 사우회인 조우회가 지난 10월25일 소공동 한성기원에서 광화배 친선 바둑대회를 가졌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이 친선 바둑대회는 해마다 양사 사우

회가 번갈아 주관해 왔다.

바둑대회가 끝난뒤엔 무교동의 한 음식점에서 푸짐한 뒤풀이를 가졌다. 언론사 사우회끼리 친선모임은 이 바둑대회가 유일하다. 올해는 조우회가 우승했으며 역대 전적은 6대5로 조우회가

앞서고 있다.

사우회 차기회장 연내 선출

SBS 사우회(회장 임형두)는 지난 10월 1일자로 회보 28호를 발행했다.

4면 컬러 인쇄로 나온 이번 회보는 사우회 창립 7주년 소식을 1면 톱으로 싣고 '사우회 차기회장 연내 선출' 소

식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SBS사우회는 지난 8월 23일 사우회장과 부회장단 간담회자리에서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우회는 11월 안으로 회장선임에 필요한 정관을 수정하는 등 모든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오는 12월 2일(월) 오후 6시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사우회 송년회를 연다.

溫故知新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



황원갑

·본회 전문위원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오리로 오해했던 것이다. 이윽고 토정이 입을 열어 이렇게 타 일렀다.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생활이 넉넉지 못하는데도 음식에 절제가 없고, 또 앉아서 편히 먹기를 좋아하니 큰일이다. 나로 말하자면 음식을 상에다 차려서 먹는 것조차도 과분하게 여기는 바이니라.” 그러고는 잡곡밥과 나물국 한 그릇만 내오게 하여 맛있게 먹었다.

토정 이지함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잘살기운동·새생활운동·새마을운동을 실천한 선구자이기도 했다. 토정이 우리나라 역사에 전무후무한 ‘결인청(乞人廳)’을 세운 것은 아산현감 때였으나 포천현감 시절에도 그와 비슷한 집을 지어 빈민들을 거두어 각자 생업을 주선하여 새 삶을 열어주었다고 전한다. 그는 포천현감으로 부임한 이듬해에 백성을 위한 건의를 했으나 조정에서 받아주지 않자 미련 없이 현감 직을 내버리고 훌쩍 떠나버렸다.

그가 아산현감으로 부임한 것은 그로부터 4년 뒤인 선조 11년(1578)이었다. 토정은 고을을 한 바퀴 돌아본 뒤 뜻밖에도 거지가 매우 많은데 놀랐다. 거지뿐 아니라 늙고 병들어 벌어도 못한 채 겨우 목숨만 이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결인청이었다. 그러자 아전들이 별떼처럼 들고 일어나 반대를 했다.

“사또! 거지새끼들은 모조리 쫓아다가 아산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데 무슨 까닭에 결인청을 만들어 우리 고을을 거지소굴로 만들려고 하십니까요?”

토정이 목청을 가다듬어 아전들을 꾸짖었다.

“어허, 고안 놈들! 헐벗고 굶주린 백성을 따뜻이 보살펴주는 것이 수령의 본분이 아니더냐? 내가 결인청을 세우려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여 양민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도 집과 땅을 갖게 하여 잘살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건물이 없다느니 재물이 없다느니 핑계를 대지만 건물은 세미(稅米)창고를 비워서 수리하면 될 것이고 재물은 한 해 동안만 먹여주면 자립할 방도가 마련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결인청을 만든 토정은 관속을 풀어 고을 안의 거지들을 죄다 잡아들여 수용하고 일을 시켰다. 노약자와 병자들은 짚신을 삼거나 새끼를 꼬는 쉬운 일을 시켰고, 젊고 튼튼한 거지들은 땅을 개간해 농사를 짓거나 배를 타고 나가 고기잡이를 시켰다. 그 밖에 손재

주가 좋은 자들에게는 도구를 마련해주고 수공업에 종사하도록 했으니, 이야말로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는 산 교훈에 다름 아니었다.

토정은 어디에 뛰어난 인물이 있다면 만사 제쳐놓고 찾아가 만났는데,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남명(南冥) 조식(曹植), 우계(牛溪) 성혼(成渾), 율곡(栗谷) 이이(李珥) 등과의 교유가 그렇게 이루어졌

다.

박현석의 <사우록(師友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토정이 젊었을 때 화담 서경덕의 학식이 빼어나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배우고자 송도(개성)로 찾아갔다. 낮에는 화담에게 글을 배우고 밤에는 객사에서 잤다. 객사의 바깥주인은 행상이었는데 그의 아내가 젊고 예뻐다. 어느 날 안주인이 서방더러 장사나가기를 권했다. 지아비가 행상을 떠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누라가 전에 없이 아양을 떨며 장삿값을 재촉한 것이 수상쩍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멀리 떠난 척하고 마을을 빠져나온 다음 그날 밤 몰래 집으로 돌아가 바깥에 숨어 동정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여우같은 여편네가 짐작했던 대로 토정의 침소에 들어가 갖은 교태를 부리며 열심히 꼬리를 치고 있었다. 서방이 일이 어찌 되는가 지켜보자 토정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의관을 바로 갖추고는 엄숙하게 남녀가 유별한 인륜도덕을 깨우쳐주는 것이었다. 온갖 교태로 아양을 떨던 마누라가 마침내 부끄러움에 못 이겨 잘못을 벌었다. 이런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서방은 단숨에 화담에게 달려가 말했다. “소인의 집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사온데 참으로 괴이합니다. 혼자 보기 아까워 감히 아뢰니다.”

화담이 그 말을 듣고 객사로 찾아가 보니 과연 사내의 말이 틀림없었다. 탄복한 화담이 방안으로 들어가 토정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학업과 수양은 이미 내가 가르칠 경지를 넘어섰구려! 원컨대 돌아가는 것이 좋리라.”

흔히 알기를 풍류남이라고 하면 가무음주를 즐기고 여색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기 십상이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토정이야 말로 풍류에 통달했으면서도 여색은 경계한 훌륭한 인격자였다. 그는 조카와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늘 이렇게 말하며 여색을 멀리하라고 타일렀다.

“이것(여색)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것이야 말할 나위도 없다!”

토정은 남루를 걸치고 삿갓 쓰고 죽장 짚고 팔도강산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런 차림새로 주유하고 당대의 내로라하는 고관대작과 명사들을 만나는데 조금도 거리낌 없었다. 토정은 청빈무욕하게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고 하여 상인이 가장 천대받던 시대에 그는 이미 상업과 경제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본보기삼아 사업수완을 발휘하여 때론을 번 적도 있었다. 언젠가는 조각배를 타고 무인도에 들어가 박을 심어서 수만 개의 바가지를 만들어 팔아 수천 석의 곡식을 사서 빈민들을 구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에는 쌀 한 되박 들어놓지 않으니 부인이 바가지를 굶을 수밖에 없었다. 토정의 문집인 <토정집>에 이런 글이 있다.

‘재물은 본래 흉물이 아니지만 나라의 재앙이 흔히 재물에서 비롯되고, 권세도 본디 흉물이 아니건만 벼슬아치들의 재앙이 흔히 권세에서 비롯된다.’

토정은 풍류사였을 뿐만 아니라 앞날을 미리 내다볼 줄 안 도통한 예언가이기도 했다. 서산대사(西山大師)·이순신(李舜臣)·이율곡(李栗谷) 등과 더불어 토정도 임진왜란을 예측한 몇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또 사람의 안색과 음성만으로도 그의 길흉화복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

1578년 음력 7월 17일 일세의 풍류기재 토정 이지함이 아산현감 자리에서 세상을 뜨자 수많은 고을 백성이 길을 메우고 마치 부모상을 당한 듯 애통해했다. 충남 아산시 영인면은 토정이 아산현감으로 재직할 당시 아산현 관아 소재지였다. 영인면사무소 앞뜰에는 1997년 12월 23일에 세운 토정 이지함의 동상이 있고, 그 뒤편에는 토정의 선정을 기리는 영모비가 있다. 또 영인초등학교 입구에는 토정 당시 아산현관아 정문이었던 여민루가, 여민루에서 마을 안으로 조금 들어가면 토정이 이전한 아산향교가 있다.

하지만 토정이 구세제민의 경륜을 펼치던 결인청 건물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아 있었으나 개발 바람에 밀려 사라져 이제는 영영 찾아볼 길이 없다. 토정의 묘소는 서해의 낙조가 내려다보이는 충남 보령시 주포면 고정리 국수봉 기슭에 있다.

토정은 죽기 전에 부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한다. “여보, 이제 당신이 돌아가시면 다시는 사람들 신수를 봐줄 수가 없겠구려?” 부인의 말에 토정이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뭐 천기(天機)를 알아서 신수를 봤는가? 사람들이 하도 졸라서 그렇게 저렇게 봐준거지.”

“그럼 앞일도 모르시면서 사람들을 속였던 말씀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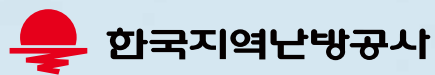
“사실 속인 것도 아닐세. 사람들은 내가 봐주지 않으면 어디 다른 곳에 가서라도 기어코 봐야만 속이 시원하게 마련이거든.”

<토정비결>이 과연 토정 이지함의 저작일까. 세상사람 대부분은 지금도 이지함이 <토정비결>의 작자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토정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잡술서를 지었어리는 없고, 그저 후세의 어떤 호사가가 지어놓고서 예언가로 유명한 토정의 이름을 도용했을 것으로 본다. [4]



햇빛을 어디든 공평하니까 바람을 어디든 찾아가니까

구석구석 별들 수 있도록, 산들산들 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평한 자연의 혜택처럼, 모두에게 행복한 에너지가 되기 위해
오늘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냉·난방사업



전력사업



CES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따소미 고객상담센터

평일 09~18시
토·일·공휴일 휴무 **1688-2488**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가나다순

강신구(姜信龜)



1940년 11월 2일생.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89 301-302
전화 : 070-8193-1367 / 010-5326-0089
〈경력〉 서울대 문리대 졸업. 미 코넬대 대학원 수료, 경향신문 입사(67), 편집국장대리, 문화일보 편집국장 편집이사,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성림(金聖林)



1940년 7월 6일생
주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가 115
전화 : 762-2328 / 010-9156-2328
〈경력〉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 사회부장, 조사심의실장, 뉴코리아 사장, 현대그룹 고문

박강지(朴康之)



1940년 3월 10일생
주소 :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우성아파트 21동 802
전화 : 415-8333 / 017-210-6963
〈경력〉 연세대 철학과 졸업(65), 경향신문 입사(65), 외신부 경제부 사회부 문화부 기자, 외신부 차장(72), 주월특파원(81) 한국경제 이사, 대한항공 미일 지역 지점장, 한일 레저(솔모로) 대표이사,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위원

신광연(辛光淵)



1938년 1월 21일생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무궁화아파트 606-205
전화 : 031-456-0711 / 010-9099-0711
〈경력〉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60),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67), 제2사회부 차장(93), 경인일보 논설위원(94-98)

이경식(李慶植)



1932년 5월 31일생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46-1 전화 : 02-796-0453
〈경력〉 1985년 7월 미국 P. Western University 졸업(언론학 Journalism), 2006년 10월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국립대학교 (Tashkent State University) 명예박사학위(동양학). 1965~1970 New Asia Press 편집장, 1973~1989 코리아헤럴드 문화부장, 1980~1981 문공부 해외공보관 전문위원, 1985~2013년 현재 영문월간 코리아포스트 발행인 겸 회장

이종연(李鍾連)



1950년 3월 12일생
주소 : 서울 서초구 중앙로 15 현대슈퍼빌 D동 1305호
전화 : 02-3471-4994 / 010-5321-4986
〈경력〉 경향신문 기자(76), 사회부 경제부 사회부차장, 국제부 차장, 워싱턴 특파원, 국제부장 논설위원, 대한건설협회 홍보실장 프런티어타임스 사장, 한나라당 대통령선거중앙선대위(언론특보), 현대스틸 산업 고문, (주)농협정보시스템 감사위원장(현)

조영서(曹永瑞)



1932년 10월 2일생
주소 :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7차아파트 334-301
전화 : 02-595-5587 / 010-2761-5587
〈경력〉 국제신문 편집부장(59), 동아일보 편집부기자(61), 조선일보 편집부장 편집부국장, 조선일보 출판국장(87), 한국방송 광고공사 이사(82), 서울신문 제작 심의실장

최택만(崔澤滿)



1939년 5월 23일생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 2동 605호
전화 : 545-9989 / 010-2588-9989
〈경력〉 서울대 상학과 졸업(64),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신문대학원 연수(83) 서울신문 기자(65), 경제부장대우(82), 논설위원(86),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94), 서울신문사 사원(고문급), 농림수산부 농업통상정책협의회 공동의장(98)

장창영 회우 별세

장창영 회우가 지난 10월 22일 오전 10시 40분 별세했다. 향년 75세. 강원도 속초가 고향인 고인은 1960년 속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 문리대 생물과를 거쳐 강릉대 경영정책대학원을 수료했다.



고 장창영 회우

경향신문을 시작으로 1968년 중앙일보 지방부기자, 연합통신 사회부 차장을 지냈다. 언론계를 떠나서는 대명 레저개발 이사직을 역임하는 등 사회활동을 활발히 해 왔다. 10월 24일 강원도 속초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

장창영 회우 영전에

弔辭

동문성(전 조선일보 기자)

먼저 한창 살 나이에 이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인가. 장창영 회우가 졸지에 이승을 떠나고 보니 그 자리가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다.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태어나 6·25전쟁 전 형님을 따라 월남했던 고인은 1953년 속초중학교와 속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진학했다. 학도병으로 군에 강제대할 무렵엔 가세가 갑자기 기울어져 복학을 포기했던 그였다. 고인은 경향신문 기자로서 언론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잘 알려진 바와같이 당시 경향신문은 D일보와 함께 강력한 야당지 성향을 띠고 있었다. 초임기자 시절부터 그는 발로 쓰는 기자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었다. 60년대 초기 중앙지들이 지방주재기자제도를 실시했는데 그 무렵 고인은 1기생에 해당하는 기자였다.

고인이 기자생활을 시작할 때 동해안에서는 예기치 못한 대형사건들이 자주 발생하여 취재진을 긴장시켰던 시절이다. 여름철 성어기에는 이른바 휴전선 근해까지 올라가는 쏜치·오징어잡이 어선들이 북한에 납치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가 하면 겨울철이면 한류를 따라 남하하는 명태 떼가 어로저지선을 넘어 내려오는 바람에 휴전선 남쪽 동해 해역에는 동해안 어선들은 물론 남해안어선들까지 몰려들어 명태잡이를 하곤 해서 휴전선 근해어장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던 때였다. 그런 기회를 노려 북한은 어선납북의 만행을 자행하곤 했었다.

고인은 그 후 중앙일보 창간과 함께 경향신문에서 이적했고 60년 중반이후부터는 동해안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에서 정말 악착같이 발로 뛰던 기자였다. 1966년 겨울 한국산악회 히말라야원정, 설악산 조난사고(죽음의 계곡) 때에는 사고 첫날부터 조난자의 시신 9기가 눈구덩이에서 모두 수습 될 때까지 10여일을 사건현장을 섭렵하는 등 참으로 끈질긴 기자정신을 발휘했다. 고인은 특히 우리의 해군사상 결코 잊을 수 없는 56(당포함)함 피격침몰사

건, 간첩 조창희(강릉공항에서 북한으로 끌고 간 YS 11기 이면 추적사건)사건, 박중국 소좌가 MIG 16기를 몰고와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백사장에 불시착, 위장 귀순한 사건, 거진에 은신한 간첩 김상태가 강릉발 서울행 KAL 여객기를 납치 북한으로 가던 중 보안관이 권총으로 범인을 사살, 초도리 해안에 불시착시켰던 아슬아슬한 현장 취재, 대진항을 출항, 안개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해경 863경비정의 추적 취재(1974년)등 이 모든 사건 현장을 빠짐없이 추적했던 기자가 바로 장창영 기자였다.

고인은 참으로 기자 정신이 투철했던 언론인이었다.

신군부가 들어서자 그는 중앙일보를 마감하고 연합통신으로 이적, 계속 활동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 언론계를 떠났다. 그 후 고인은 관광회사인 주식회사 '대명'으로 옮겨가 이사직을 맡아 '속초 대명'을 확장 현대화 하는 계획에 속초 대명이 가장 아쉬워 했던 골프장 공사를 완공하는데 진력, 3년 만에 이를 완성하는 등 회사가 희망했던 간절한 숙원사업도 이루어 졌다.

고인은 고향 사랑의 열정도 남달랐다.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고 발 벗고 나서는 등 애항심도 둘 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다. 고인의 모교인 속초고등학교 동창회장(8대)직을 맡아 모교와 동창회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동문들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졸지에 우리 곁을 떠난 고인의 빈자리가 이렇게 넓은 것은 고인이 남긴 행적이 그만큼 거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고인은 비록 이승을 떠났지만 높은 경륜과 지역사회를 위해 보인 헌신적인 봉사는 우리들에게 값진 귀감으로 길이 빛날 것이다.

장창영 회우여! 이승에서 못다 이룬 꿈일랑 하늘나라에서 모두 이루시고 편히 영면 하소서! ☎

11월 건강포럼 16일 엽니다

제 목 : '당당하고 아름다운 OLD청년이 되려면'
강 사 : 김 용 범 희망건강관리교육원 원장
일 시 : 2013년 11월 16일(토) 오후 2시
장 소 :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외환은행앞 이윤수 병원 홀

www.nonghyup.com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새로운 농협이 언제나 당신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의 가치



회우동정 가나다순

제4회 白橋文學賞 시상



권혁승(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원로회우= 10월 19일(토) 오후 2시 강릉 문화의 집, 행복한 모루 3층 대강당(구 명주군청)에서 제4회 白橋文學賞 시상식을 가졌다. 백교문학상은 백교문화회(회장 권혁승)가 매년 호친사상과 애향심이 깊은 문학작품을 공모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위한 과제를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6·15 폐기-국민전선’ 창립대회



이도형(한국논단 발행인)원로회우= ‘6·15 폐기, 5·18 규명 국민전선’ 창립대회 발기인으로 지난 10월 4일(금)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경향신문 창간 기념식에서 축사



김명수(경향신문 사우회장)회우= 지난 10월 2일 오전 9시 30분 경향신문 창간 67주년 기념식에서 사우회장으로서 처음으로 기념 축사를 했다.

6·25 추념공원건립 원로위원 위촉



박기병(전 강원민방 사장)원로회우= 지난 10월 15일 6·25추념공원건립 국민운동본부로부터 원로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기 이북5도민 체육대회



박기정(이북5도위원장·함경북도 지사)회우= 10월 13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제31회 대통령기 이북5도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아·태지역 라운드 테이블’ 개막연설



이경재(방송통신위원장)회우= 10월 14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아·태지역 규제자 라운드 테이블’ 개막 연설에서 “개인 정보 유출, 부정확한 정보의 범람,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미래 디지털 융합 시대를

서울대 정치학과 19회 동기회장



이병대(전 KBS 해설위원)부회장= 9월 24일 홍익대 홍문관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학과 19회 연례총회에서 동기회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회장은 10월 1일부터 2년간 동기회장직을 맡는다.

중앙언론문화상 수상



심상기(서울문화사 회장)회우= 지난 10월 10일 중앙대 개교 95주년 기념식에서 제25회 중앙언론문화상을 수상했다.

한국 고미술저널 편집주간



이향숙(전 한국일보 문화부 차장)회우= 최근 국내 유일의 고미술 전문 MOOK지 ‘고미술저널’ 편집주간으로 취임.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취임



제재형(한국일보 사우회장)본회 고문= 지난 9월 1일자로 사단법인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대외 홍보담당)로 선임됐다. (전화 02-741-0815)

‘이승만과 김구’ 12년 연재 끝내 손세일 회우 월간조선에 2001년부터 실어

손세일 회우(사진)가 지난 12년간 월간조선 ‘에 고한’ ‘孫世一의 비교평전-李承晩과 金九’ 연재를 마쳤다.

월간조선 2001년 8월호부터 연재를 시작해 2013년 7월호(6월 17일 발행)까지 12년간 연재한 횟수는 110회나 된다.

여기에 1·2·3부가 끝날 때마다 에필로그를 합하면 113회를 연재한 셈. 200자 원고지 2만여 장 분량이다. 기간이나 원고량 보다 더 거대한 것은 이 비



교 평전(評傳)이 다루고 있는 인물이 한국 민족주의의 양대 巨人인 이승만(李承晩)과 김구(金九)라는 점이다. “목숨을 걸고 원고를 썼다”는 손회우는 이 글을 연재하는 동안 “아플 틈도 없었다”

고 술회한바 있다. 정치를 그만둔 후 손 회우가 ‘이승만과 김구’를 다시 쓰기로 결심한 것은 ‘탈(脫)냉전 이후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 정정 합니다 ◀

O-대한언론 10월 1일자 기사 중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면= 고 이해복 상임고문 유가족 관련 기사 중 장남 양원씨를 충원씨로, 미망인 ‘방봉자 여사’는 ‘방봉세 여사’의 잘못으

로 바로 잡습니다. 또한 이날 참석하신 분 중 신우식 고문이 누락되었기로 추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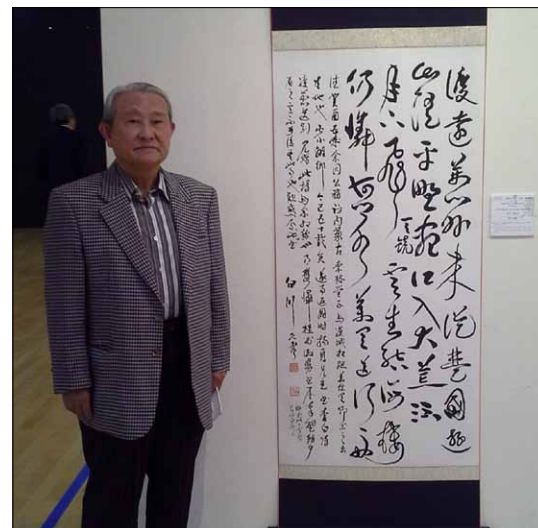
◇8면= ‘심금 울린 출판기념회’ 사진 설명(책 기증 관련)중 백성주 국방 차관은 백승주 국방차관의 잘못으로 바로 잡습니다.

조창화 본회명예회장 - 권혁승 회우 ‘2013 세계 서예비엔날레’에 출품

조창화 명예회장과 권혁승 회우는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주 서예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2013 서예전북비엔날레’에 작품 한 점씩을 출품, 서예실력을 과시했다.

세계 서예 비엔날레는 한국의 서예를 세계로 확산시킴에 있어 그 뿌리를 튼튼히 다지고 싹을 틔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17개 나라 1천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출품작 앞에선 조창화 본회 명예회장.

본회 바둑동호인회 연말대회 개최

계사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넘기기 전에 대한 언론인회 바둑 동호인회 (회장 정기정)의 연말 바둑대회가 11월 29일(금)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장소는 매번 모이는 종로 3가 국일관 뒤편의 바둑 세계기원 입니다.

이번 대회는 A조 (1급~4급)와 B조 (5급 이하)로 나뉘 진행되며 각조 3위

까지 시상합니다.

회원 여러분, 많이 참석 하셔서 그동안 갈고 닦은 바둑 실력을 맘껏 발휘하시고 묵은 회포도 실컷 풀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회가 끝난후 송년 회식이 있을 예정이며 회비는 없습니다.

연락처 : 010-8765-3561 (정기정)

▶ 주소·전화번호 변경 ◀

강승훈= 구로구 오류동 340 삼천리 아파트 101동 304호

구월환= e-mail : kwh2009@hanmail.net

한강수= 강서구 등촌동 707 주공아파트 805-706(우 157-798)

☎ 010-2686-5543

한영도=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77길 20 현대 ESA 아파트 607호

☎ 02-586-5891 / 010-5221-3783

황원갑=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마을 7단지

임광아파트 705동 1105호(우410-721)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팔호안 납입연도)

강신구(입회비), 김성림(입회비), 권도호(13), 박강지(입회비), 성만복(입회비, 13 연회비), 신광현(입회비), 이동훈(13,14), 이상근(13), 이재권(13), 이종연(입회비), 장효상(13),

조영서(입회비), 이경식(입회비), 최택만(입회비), 010-4275-7930(성명미상, 12만원) (25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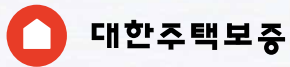
▶ 회우경조사 ◀

김영범 = 10월 18일 아들 결혼

김택근 = 10월 6일 장녀 결혼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든든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덕분에 미소가 절로 납니다.

보증금 1억원 기준
“월 1만 6천원에
전세보증금 매일 걱정 뚫”
이제 안심하고 전세계약 하세요.



New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 가입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 가입대상**
 - 아파트, 단독주택(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수도권 3억원 이하, 그 외 지역 2억원 이하
- 신청인** 임차인
- 보증한도**
 - 아파트 : 주택가액(매매시세)의 90%
 - 기타 : 주택가액의 70~80%
- 가입가능액** 보증한도내에서 선순위채권금액을 제외한 전세보증금 전액
- 보증료** 연 0.197% (개인임차인 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월 1만 6천원) * 연납
* 보증료할인 :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70%이내인 경우 보증료 10% 할인 (70%초과~80%이내 5% 할인 적용)

중년의 경험과 SK텔레콤의 기술이 만나
인생의 두 번째 가능성을 열어주는
SK텔레콤 [행복창업 프로젝트]

SK텔레콤이 “아버지들의 두번째 첫 출근”과 동행합니다

‘도전을 망설이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꼭 하고 싶은 일을 찾으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SK텔레콤은 [행복창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경험이라는 재산과, 꿈이라는 재능으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행복한 두 번째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SK텔레콤은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